

既出實錄

기 출 실 록

추록

2

독해

당신이 이겨야 할 사람은
당신의 경쟁자가 아닌
바로 어제의 당신입니다.
어제의 당신에게 지지 마세요.

조건에 맞게 쓰기

014

2022 군무원 7급

다음은 실의에 빠진 친구를 위로하려고 쓴 쪽지 글이다. 아래의 조건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은?

- 희망적인 내용을 담을 것
- 적절한 속담이나 격언을 인용할 것
- 직유나 은유의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많이 아프지?
 몇 주 동안 혼자 있으려니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겠니?
 문득 '하면 된다'는 말이 떠오른다.
 반 친구들도 네 안부를 물었다.
- ② 친구가 떠나서 무척이나 섭섭하겠구나.
 축 처져 있는 모습, 너 답지 않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
 너무 아파하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렴.
 봄의 새싹같이.
- ③ 선생님께 혼나서 많이 속상하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거야.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
 괜찮지? 수업 끝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
- ④ 동생이 아픈데 집안 사정도 어려워졌다면?
 공부하기도 힘들 텐데 '엮친 데 덮친 격'이 되었구나.
 힘내! 우리는 젊잖아?
 햇빛처럼 환한 너의 웃음을 다시 보고 싶다.
 친구야.

해설 '엮친 데 덮친 격'에서 '동생이 아픈데 집안 사정도 어려워진 상황'에 적합한 속담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햇빛처럼'에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는 젊잖아?'에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모든 조건을 잘 반영한 것은 ④이다.

- 오답 풀이** ① '하면 된다'라는 희망적인 내용의 격언을 인용하고 있지만, 직유나 은유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 ② '봄의 새싹같이'에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을 인용하고 있지만 친구가 떠나 상심한 친구를 위로하는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아니하나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하게 됨을 이르는 말
- ③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라는 격언이 나타나지만, 선생님께 혼나서 속상해하는 친구를 위로하는 말로는 적절하지 않다. 직유나 은유의 표현도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④

3 말하기

말하기의 종류와 원리

선재국어 2권 20쪽

027

2022 국가직 9급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수: 지난번에 너랑 같이 들었던 면접 전략 강의가 정말 유익했어.
 지민: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정수: 특히 아이스크림 회사의 면접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됐어.
 지민: 맞아. 그중에서도 두괄식으로 답하라는 첫 번째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더라.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는 전략이 면접에서 그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어.
 정수: 예! 그래? 나는 두 번째 내용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는데.
 지민: 그랬구나. 하긴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에 관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답변한 전략도 설득력이 있었어. 하지만 초두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
 정수: 그렇긴 해.

- ① 자신의 면접 경험을 예로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며 상대방의 이견을 반박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상대방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해설 지민이 면접 전략 강의 중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하라는 첫 번째 내용이 인상적이라고 말하자 정수는 첫 번째 내용보다 두 번째 내용이 더 인상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자 지민은 "그랬구나. 하긴 아이스크림 ~ 설득력이 있었어"라며 두 번째 내용이 더 인상적이라는 정수의 견해를 존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지만 초두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라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③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이러한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은 공손성의 원리 중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다른 점을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극대화하려는 '동의를 격률'을 지킨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지민은 면접 전략 강의를 듣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신의 면접 경험을 예로 들어 정수를 설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지민이 정수의 약점을 공략하거나 정수의 의견을 반박하는 내용은 없다.
- ④ 지민은 정수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자 정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민이 갈등 해소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사용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률 96.4% 정답 ③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예은 씨. 오늘 회의 내용을 팀원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B: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메일로 공유하면 되겠지요?
 A: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B: 네. 그럼 회의 내용은 개조식으로 요약하고, 팀장님을 포함해서 전체 팀원에게 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A: 예은 씨. 그런데 개조식으로 회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B: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네요. 개조식으로 요약할 경우 회의 내용이 과도하게 생략되어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네요.

- ① A는 B에게 내용 요약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대화 중에 공감 표지를 드러내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
- ③ B는 회의 내용 요약 방식에 대한 A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이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A는 개조식 요약 방식이 회의 내용을 과도하게 생략하여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설 B가 요약한 내용을 메일로 공유해도 되는지 묻자 A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라고 반응하고 있다. 또 A가 개조식으로 요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자 B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네요”라고 반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A와 B 모두 상대방의 말에 공감한다는 표지를 드러내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A가 B에게 내용 요약방식을 제안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A는 B에게, 개조식으로 회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③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네요. 개조식으로 ~ 어려울 수 있겠네요”에서 B는 회의 내용을 개조식으로 요약하면 문제가 있다는 A의 문제 제기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④ 개조식 요약 방식이 회의 내용을 과도하게 생략하여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여 말하는 사람은 A가 아니라 B이다.

정답률 85.9% 정답 ②

‘을’이 ‘동의를 격률’에 따라 대화를 한 것은?

- ① 갑: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을: 무슨 일이지요? 지금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 ② 갑: 글씨를 좀 크게 써 주세요.
 을: 귀가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 ③ 갑: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을: 저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서 제대로 도와 드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④ 갑: 여러 침대 중에 이것이 커서 좋은데 살까요?
 을: 그 침대가 크고 매우 우아해서 좋군요. 그런데 좀 커서 우리 방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해설 동의를 격률이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다른 점을 최소화하고 일치점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동의를 격률에 따른 것은 ④이다. ④에서 ‘을’은 일단 “그 침대가 크고 매우 우아해서 좋군요”라며 갑의 의견에 동의하여 일치점을 극대화한 다음 “그런데 좀 커서 ~ 않을 것 같아요”라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을’은 “지금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라고 말하며 ‘갑’의 요청을 바로 거절하고 있다.
 ② ‘귀가 어두워서 잘 들리지 않는데’에서 ‘을’은 잘 듣지 못한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려는 ‘관용의 격률’을 따른 것이다.
 ③ “저는 매우 부족한 사람이라서 ~ 걱정입니다”에서 ‘을’은 자신을 상대방에게 낮추어 겸손하게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방을 극대화하려는 ‘겸양의 격률’을 따른 것이다.

정답률 76.7% 정답 ④

A의 대화 방식에 따라 <보기>에 응답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사람마다 대화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를테면 A는 상대방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하지만 B는 정보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한다.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하는 A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말이 오가는 대화 과정 자체를 통해서 상대방과 함께 공감하며 유대감을 갖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에 비해 정보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하는 B는 대화 과정 자체보다 대화 내용에 중점을 두고 공감이나 유대감 형성보다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보기
어제 자취방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냄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

- ① 냄새 없는 친환경 페인트를 썼어야 했는데, 다음엔 그렇게 하자.
② 할 수 없지 조금만 참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③ 문 활짝 열어 놓고, 며칠간 친구 집에서 지내다 와.
④ 냄새가 심해서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은 어때?

해설 A의 대화 방식은 상대방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 과정 자체를 통해 상대방과 함께 공감하며 유대감을 갖는 것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페인트 냄새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감정에 공감하며 상대방의 상태를 묻는 ④가 A의 대화 방식에 따라 응답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③ 냄새 없는 친환경 페인트를 쓰자고 하거나, 환기를 시키고 다 큰 데서 지내다 오라는 말은 모두 문제 해결 방법이므로, 정보성에 초점을 두고 대화하는 B의 대화 방식이다.

정답 ④

다음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에 대해서 말해 볼까요? 학자들이 한글에 대해 꽤 많이 연구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답니다. 우선 훈민정음이 언제 완성되었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세종실록》에는 음력 1443년 12월, 즉 양력 1444년 1월경이라고만 되어 있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어요. 또 언제 반포되었는지도 잘 모르지요. 사실 훈민정음의 반포란 말은 어폐가 있어요. 《훈민정음》 발간을 반포라고 부르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반포식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반포일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화면에 보이는 책이 뭐지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맞아요. 《훈민정음》이죠. 정인지가 쓴 이 책의 서문에 따르면 《훈민정음》의 완성은 1446년 음력 9월 상순, 즉 양력 10월 초로 알려졌을 뿐, 정확한 날짜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한글날이 서로 달라요. 북한은 추정된 창제일에 따라 1월 15일을, 남한은 추정된 반포일에 따라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했어요. 또 '한글'이라는 명칭도 누가 처음 지어 써 썼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1910년대에 '한글'이라는 명칭이 나타나는데, 그 명칭을 주시경의 제자들이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시경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만 할 뿐이지요.

이제 한글의 우수성을 말해 볼까 해요. 한글은 음소 단위의 표음 문자이지만, 모아 쓰기를 하여 음절 단위로서의 표음 문자가 갖는 장점을 일부 지니게 되었고 경음이나 격음과 같은 음성 자질을 글자 모양에 반영하기도 했죠. 화면을 보면 서로 모양이 비슷한 'ㄱ, ㅋ, ㆁ'이 각각 '평음, 격음, 경음'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보여 주죠. 클릭해 볼까요? 자, 평음, 격음, 경음이 서로 다른 소리로 들리죠? 한글은 글자 모양에 기억하기 쉬운 체계성과 조형성을 부여함으로써 세계의 여러 문자보다 우수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체계성과 조형성은 자음의 경우 발음 기관의 모양으로 구현되고 모음의 경우 철학적 관념의 시각적 조합으로 구현되니, 이런 매력적인 글자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 ① 시각과 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강연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제시하며 강연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
③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강연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청중에게 질문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해설 한글에 대한 정보와 한글이 지닌 우수성을 알려 주는 것이 이 강연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의 "화면에 보이는 책이 뭐지요?", 2문단의 "화면을 보면 ~ 체계적인 대응을 보여 주죠"에서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2문단의 "자, 평음, 격음, 경음이 서로 다른 소리로 들리죠?"에서 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강연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1문단에서 남한과 북한의 한글날이 다른 이유를 《세종실록》과 《훈민정음》에 기록된 바를 토대로 설명하여 강연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④ "화면에 보이는 책이 뭐지요?", "자, 평음, 격음, 경음이 서로 다른 소리로 들리죠?" 등에서 알 수 있다.

정답 ②

5 논증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추리하기

오답 1위

064

2022 지방직(서울시) 9급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만약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그들은 유의미한 문장의 기준으로 소위 '검증 원리'라는 것을 제안했다. 검증 원리란, 경험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문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 두 문장 중 예로 생각해 보자.

- (가) 달의 다른 쪽 표면에 산이 있다.
- (나) 절대자는 진화와 진보에 관계하지만, 그 자체는 진화하거나 진보하지 않는다.

위 두 문장 중 경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비록 현실적으로 큰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가)는 분명히 경험을 통해 진위를 밝힐 수 있다. 즉 우리는 (가)의 진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근거하여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가)는 검증할 수 있고, 유의미한 문장이라고 판단한다. 그럼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나)의 진위를 확정할 수 있는가?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그런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나)는 검증할 수 없고 과학에서 사용될 수 없는 무의미한 문장이라고 말한다.

- ①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 ②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하다.
- ③ 검증 원리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문장은 무의미하다.
- ④ 검증 원리에 따르면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하다.

해설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만약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는 가언 삼단 논법(만일 p이면 q이다)이 적용된 것이다. 즉 '만약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p이면) → 그것에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q이다)'의 논리 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①은 후건을 부정하여 전건의 부정을 도출해 낸 것이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즉, 만약 어떤 것에서 사용된 문장이 무의미하다면(q의 부정) → 그것은 과학이 아닌 것이다(p의 부정).

오답 풀이 ② '과학의 문장'은 '유의미한 문장'에 포함된다. 그러나 과학의 문장 이외에도 유의미한 문장은 존재할 수 있으므로 ②는 잘못된 추론이다.

오답률 1위 23.2%

- ③ 검증 원리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문장은 무의미하다.

검증 원리란 '경험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문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경험을 통해 참, 거짓을 검증할 수 있다면 유의미하다.

- ④ 검증 원리에 따르면, 경험을 통해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이라면 유의미하다.

정답률 56.9% 정답 ①

보충 자료 가언 삼단 논법

대전제가 조건을 제시하는 명제로 이루어진 삼단 논법이다. 조건 제시 부분이 전건(前件), 그 결과 부분이 후건(後件)에 해당한다.

- 만일 p이면 q이다. → p이다. → q이다. (전건 긍정으로 후건 긍정)
- 만일 p이면 q이다. → q가 아니다. → p가 아니다. (후건 부정으로 전건 부정)

- ① •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 비가 온다(전건 긍정). → 그러므로 땅이 젖을 것이다(후건 긍정).
-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 땅이 젖지 않았다(후건 부정). → 그러므로 비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전건 부정).

065

2022 지방직(서울시) 9급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세요?

컴퓨터에는 자유 의지가 있을까? 나아가 컴퓨터에 도덕적 의무를 구속시킬 수 있을까? 컴퓨터는 다양한 전기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물리 법칙, 프로그래밍 방식, 하드웨어의 속성 등에 따라 필연적으로 특정한 초기 상태로부터 다음 상태로 넘어간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상태에서 세 번째 상태로 이동하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즉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시스템에는 자유 의지가 있을까?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결과가 하나로 고정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시스템에는 항상 하나의 선택지만 있을 뿐이다. 그런 뜻에서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다는 것과 자유 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자유 의지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자유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자유 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에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없음은 당연하다.

보기

- ㉠ 컴퓨터는 자유 의지를 가지지 않으며 도덕적 의무의 귀속 대상일 수도 없다.
- ㉡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 ㉢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은 자유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2문단의 내용에서 아래 두 개의 명제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명제 1.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자유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명제 2. 자유 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은 도덕적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런데,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컴퓨터는 자유 의지를 가지지 않으며 도덕적 의무의 귀속 대상일 수도 없다(㉠). 또한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은 항상 하나의 선택지만 존재하는 '결정론적 시스템'이다. '명제 1'에 따라, 결정론적 시스템은 자유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정답률 68.0% 정답 ④

1 글의 사실적 이해

제목 파악하기

선재국어 2권 54쪽

005

2022 군무원 9급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방정식이라는 단어는 ‘정치권의 통합 방정식’, ‘경영에서의 성공 방정식’, ‘영화의 흥행 방정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애용된다. 수학의 방정식은 문자를 포함하는 등식에서 문자의 값에 따라 등식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합 방정식의 경우, 통합을 하는 데 여러 변수가 있고 변수에 따라 통합이 성공하거나 실패할 수 있으므로 방정식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적절하다.

그런데 방정식은 ‘변수가 많은 고차 방정식’, ‘국내·국제·남북 관계의 3차 방정식’이란 표현에서 보듯이 차수와 함께 거론되기도 한다. 엄밀하게 따지면 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차수는 무관하다. 변수가 1개라도 고차 방정식이 될 수 있고 변수가 많아도 1차 방정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개수에 따라 m 원 방정식으로, 상황의 복잡도에 따라 n 차 방정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 4차 방정식까지는 근의 공식, 즉 일반해가 존재하므로 해를 구할 수 없을 정도의 난맥상이라면 5차 방정식 이상이라는 표현이 안전하다.

- ① 수학 용어의 올바른 활용
- ② 실생활에서의 수학 공식의 적용
- ③ 방정식의 정의와 구성 요소
- ④ 수학 용어의 추상성과 엄밀성

해설 방정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분야에서 애용되는데, 이것이 적절하게 쓰인 경우도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잘못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바른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시문은 방정식을 예로 들어 수학 용어를 그 의미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하지는 견해를 전한 글이므로 ‘수학 용어의 올바른 활용’이 제목으로 가장 옳다.

정답률 63.7% 정답 ①

006

2022 군무원 7급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제 주체들은 시장을 통해 필요한 재화를 얻거나 제공하며, 재화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시장을 통한 재화의 배분이 어렵거나 시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 시장 제도를 적절히 설계하면 경제 주체들의 이익을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데, 이를 ‘시장 설계’라고 한다. 시장 설계의 방법은 양방향 매칭과 단방향 매칭이 있다. 양방향 매칭은 두 집합의 경제 주체들을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선호도를 최대한 배려하여 쌍으로 맺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단방향 매칭은 경제 주체들이 지니고 있는 재화를 재분배하여 더 선호하는 재화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결국 양방향 매칭은 경제 주체들 간의 매칭을, 단방향 매칭은 경제 주체에게 재화를 배분하는 매칭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시장 설계와 방법
- ② 재화 배분과 방법
- ③ 매칭의 선택과 방법
- ④ 경제 주체와 매칭

해설 핵심어인 ‘시장 설계’의 개념을 제시한 뒤 시장 설계의 두 방법인 양방향 매칭과 단방향 매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는 ‘시장 설계와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재화 배분’은 시장 설계의 기능 중 하나일 뿐이며, ‘재화 배분의 방법’은 시장 설계의 방법 중 하나인 단방향 매칭에만 관련이 있으므로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④ 중심 화제인 ‘시장 설계’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시 영국의 곡물법은 식량 가격의 인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농업 생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영국 정부는 수입 곡물에 대해 탄력적인 관세율을 적용하여 곡가(穀價)를 적정하게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나폴레옹 전쟁 이후 전시 수요는 크게 둔화된 반면, 대륙 봉쇄가 풀리면서 곡물 수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식량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에 농부들은 수입 곡물에 대해 관세를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는 국력의 유지와 국방의 측면을 위해서도 국내 농업 생산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주들의 주장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이와는 달리, 공장주들은 수입 곡물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반대하였다. 관세가 인상되면 곡가가 오르고 임금도 오르게 되며, 그렇게 되면 이윤이 감소하고 제조품의 수출도 감소하여 마침내 제조업의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공장주들은 영국의 미래는 농업이 아니라 공업의 확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곡물법의 즉각적인 철폐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 ① 영국 곡물법의 개념
- ② 영국 곡물법의 철폐
- ③ 영국 곡물법에 대한 의견
- ④ 영국 곡물법의 제정과 변화

해설 영국 정부는 수입 곡물에 대해 탄력적인 관세율을 적용하여 곡물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고자 곡물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나폴레옹 전쟁 이후 식량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농부들은 수입 곡물에 대해 관세를 더 높일 것을 요구하고 반대로 공장주들은 수입 곡물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반대했다는 것이 제시문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는 '영국 곡물법에 대한 의견'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② 영국 곡물법에 대한 서로 상반된 의견 중 하나인 공장주들의 요구이므로,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제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영국 곡물법의 제정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곡물법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전에 '혐오'는 대중에게 관심을 끄는 말이 아니었지만, 요즘에는 익숙하게 듣는 말이 되었다. 이는 과거에 혐오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문제가 폭발하듯 가시화되었다는 뜻이다. 혐오 현상은 외계에서 푹 떨어진 괴물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체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 반드시 선행한다.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주의 사항이 있다. 혐오나 증오라는 특정 감정에 집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혐오가 주제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니, 얼핏 이율배반처럼 들리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왜 혐오가 나쁘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답한다. "나쁜 감정이니깐 나쁘다.",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게 만드니까 나쁘다." 이 대답들은 분명 선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성격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혐오나 증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우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잘못을 범하기 쉬워진다.

인과 관계를 혼동하면 곤란하다.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각종 혐오는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다. 사회 문제의 기원이나 원인이 아니라, 발현이며 결과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혐오는 증상이다. 증상을 관찰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되면 곤란하다. 우리는 혐오나 증오 그 자체를 사회악으로 지목해 도덕적으로 지탄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

- ① 혐오 현상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혐오 현상은 선량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 ③ 혐오 현상을 만들어 내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 ④ 혐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사회 문제는 잘 보인다.

해설 2문단에서는 혐오라는 감정에 집착하여 혐오 현상을 바라보면 문제의 성격을 오인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문단에서는 혐오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며, 혐오를 도덕적으로 지탄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혐오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원인이 되는 사회 문제를 찾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혐오 현상을 만들어 내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가 주제로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혐오는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다. 즉 사회적 문제가 원인이 되어 혐오 현상이라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② 2문단의 "왜 혐오가 나쁘냐고 물어보면 ~ 이 대답들은 분명 선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에 혐오라는 감정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의 선량한 의도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글쓴이는 선량한 마음만으로는 '혐오 현상'의 본질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④ 2문단에 따르면, 혐오나 증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우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잘못을 범하기 쉬워진다. 즉 혐오라는 감정(손가락)에 집중할수록 그 원인이 되는 사회 문제(달)를 잘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정답률 81.3% 정답 ③

077

2022 국가직 9급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 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우리 농장 근처에 신축된 골프장의 빛 공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빛이 공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골프장이 야간 운영을 시작했을 때를 기점으로 우리 농장의 수확률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무조건 막는다면 골프장 측에서 반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야간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등의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군에서도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조명의 조도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농장과 골프장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① 시장에게 빛 공해로 농장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 ② 건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 ③ 다른 지역에서 야간 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 ④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제한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해설 골프장의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기를 △△시 시장에게 부탁하는 건의문이다.

글쓴이가 건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힌 부분은 없다. 글쓴이는 지나친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작물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건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지나친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 입증된 바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 확인했습니다'에서 알 수 있다. 즉 야간 조명이 식물의 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실제 발생한 피해를 근거로 들어 빛 공해로 자신의 농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시 시장에게 요청하고 있다.
- ③ '○○군에서도 빛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조명의 조도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에서 알 수 있다.
- ④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무조건 막는다면 '골프장 측에서 반발할 것'이라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하고, '계절에 따라 야간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등의 보완책'을 언급하며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률 93.1% 정답 ②

078

2022 국가직 9급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 또는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방위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전근대 사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산업 혁명으로 봉건 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탄생한 근대 사회에 이르러 구빈법에 따른 국가 개입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아동 보호가 시작되었다.

1922년 쥘 예사는 아동 권리 사상을 담아 아동 권리에 대한 내용을 성문화하였다. 이를 기초로 1924년 국제 연맹에서는 전문과 5개의 조항으로 된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아동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든지 “아동의 재능은 인류를 위해 쓰인다는 자각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최근에 와서야 국제 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아동은 보호되어야 할 수동적인 존재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 권리 협약〉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토대로 2016년 〈아동 권리 헌장〉 9개 항을 만들었다. 이 헌장은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보장 받을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의견이 존중될 권리’ 등 유엔의 〈아동 권리 협약〉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문에는 아동의 권리와 더불어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여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 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 ② 〈아동 권리 헌장〉은 〈아동 권리 협약〉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 ③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아동 권리 협약〉, 〈아동 권리 헌장〉에는 모두 아동의 발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 ④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은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진전된 성과를 이루었다.

해설 아동의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설명한 글이다. 2~3문단에 따르면,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에서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 인식되었을 뿐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 않았으므로 ④가 잘못된 이해이다.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것은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 권리 협약〉에서부터이다.

- 오답 풀이** ① 1문단의, 전근대 사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근대 사회에 이르러 아동 보호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즉 근대 이후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것이다.
- ② 3~마지막 문단에서 알 수 있다. 1989년 〈아동 권리 협약〉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를 토대로 2016년에 〈아동 권리 헌장〉을 만들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 많은 것들이 거론되어 왔지만, 의학사의 관점에서 볼 때 흥미롭고 논쟁적인 원인은 페스트이다. 페스트가 유럽의 인구를 격감시킴으로써 사회 경제 구조가 급변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재래의 전통이 지니고 있던 강력한 권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예컨대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질병을 예측하지 못한 기존의 의학적 전통을 불신하게 되었으며, 페스트로 인해 '사악한 자'들만이 아니라 '선량한 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죽는 것을 보고 이전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신과 교회의 막강한 권위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되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에 대한 경험은 사람들을 여러 방향에서 변화시켰다. 사람들은 거리에 시체가 널려 있는 광경에 익숙해졌고, 인간의 유해에 대한 두려움 또한 점차 줄어들었다. 교회에서 제시한 세계관 및 사후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삶과 죽음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새롭게 사유하기 시작했다. 중세의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은 고대의 학문과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신에 대한 무조건적 찬양과 복종 대신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사유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술사에서 두드러지게 포착된다. 인간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인체의 아름다움이 재발견되었고, 인체를 묘사하는 다양한 화법도 등장했다. 인체에 대한 관심은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기존의 의학적 전통을 여전히 신봉하던 의사들에게 해부학적 지식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반면, 당시의 미술가들은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해부학자이기도 할 만큼 인체의 내부 구조를 탐색하는 데 골몰했다.

- ① 전염병의 창궐은 르네상스의 발생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 ② 페스트로 인한 선인과 악인의 무차별적인 죽음은 교회가 유지하던 막강한 권위를 약화시켰다.
- ③ 예술가들이 인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함으로써 고대의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다.
- ④ 르네상스 시기에 해부학은 의사들보다도 미술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해설 페스트가 사람들의 인식, 미술, 의학 등에 미친 영향을 통해 르네상스의 발생 요인을 인과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2~**마지막 문단**은, '중세의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 → 고대의 학문과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 → 인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 → 인체의 아름다움이 재발견됨'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즉 **고대의 학문과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인체의 아름다움이 재발견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선후 관계를 바꾸어 얘기한 ③이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1문단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다.

② 1문단의, 페스트로 인해 사악한 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자도 무차별적으로 죽는 것을 보고 신과 교회의 막강한 권위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되었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④ **마지막 문단**에서 알 수 있다. 즉 의사들은 해부학적 지식을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한 반면, 르네상스 시기의 미술가들은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해부학자이기도 할 만큼 **인체의 내부 구조를 탐색하는 데 골몰했다**.

정답률 85.4% 정답 ③

공감 TIP



일의 선후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어 구성한 선택지는 내용 일치 문제에서 자주 등장해, 선택지 내용에 속지 않도록 조심!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서양의 드래건(dragon)은 불을 내뿜는 악의 상징이었지만, 동양의 용(龍)은 신령스러움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용에 대한 동양의 인식에 의하면, 용은 날개 달린 드래건과 달리 날개 없이도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고 물속에서도 지낼 수 있으며, 네 발이 있으나 땅에서 걷는 일이 없다. 바닷가 사람들은 이러한 용이 주로 바다 속 용궁에서 지낸다고 생각했던 데 비해, 육지 사람들은 주로 하늘 위 구름 속에서 지낸다고 믿었다. 이는 환경 중심적 사고에 기인한바, 어부들은 용을 고깃배를 위협하는 풍랑(風浪)의 원인으로, 농부들은 곡식을 자라게 하는 풍우(風雨)의 원인으로 여긴 까닭이다. 자연히 어부는 '공포', 농부는 '은혜'라는 대립적 관념을 용의 신령함에 결부하게 됐는데 우리나라 전통 사회에서는 농업 비중이 큰 까닭에 대체로 용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보다는 상서로운 존재로 여겼다.

- ① 바닷가 어부들에게 '구름'과 '용궁'은 대립적 관념이었다.
- ② 육지 농부들은 구름 속 용에게 네 발이 있다고 인식했다.
- ③ 환경 중심적 사고에 의하면 풍랑과 풍우는 상서로운 현상이다.
- ④ 드래건에 대한 서양의 인식에 의하면 드래건은 하늘을 날 수 없다.

해설 용에 대한 동양의 인식이 서양과 다른 이유를 환경과 결부하여 설명한 글이다. 동양의 인식에 의하면, 용은 네 발이 있지만 땅에서 걷는 일이 없고 육지 사람들은 용이 하늘 위 구름 속에서 지낸다고 믿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볼 때, 육지 농부들은 용이 구름 속에 살며 네 발을 지녔다고 인식했을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바닷가 어부들에게 구름과 용궁이 대립적 관념이었던지는 알 수 없다. 바닷가 어부들은 용의 신령함에 공포를 결부했는데, 용궁은 그런 용이 주로 지내는 곳이다.
- ③ 환경 중심적 사고에 의하면 어부들에게 용은 고깃배를 위협하는 풍랑의 원인이고, 농부들에게는 곡식을 자라게 하는 풍우의 원인이다. 즉 풍우는 상서로운 현상이지만 풍랑은 상서로운 현상이 아니다.
- *상서롭다(祥瑞롭다):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
- ④ '용에 대한 동양의 ~ 용은 날개 달린 드래건과 달리 ~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로 보아, 서양의 인식에 의하면 드래건은 날개가 달렸고 하늘을 날 수 있다.

정답률 77.6% 정답 ②

다음 대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폐가수스는 정말로 실존하는 것이겠지?
 을: '폐가수스'라는 단어는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한다고 생각해.
 갑: '폐가수스'라는 단어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분명하지?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지칭하는 실존하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돼. 모든 단어는 무언가의 이름인 것이지. 그러니 폐가수스가 실존하지 않는다면 '폐가수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의미를 지니겠어? 이처럼 모든 이름은 실존하는 대상을 반드시 지칭해.
 을: 단어 '로물루스'를 생각해 봐. 이 단어는 실제로는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축약된 기술어(記述語)야. '자기 동생을 죽이고 로마를 건국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한 어떤 전설상의 인물'이라는 기술의 축약어일 뿐이란 거지. 만약 이 단어가 정말로 이름이라면, 그 이름이 지칭하는 대상이 실존하는지는 문제도 되지 않았을 거야. 어떤 단어가 이름이라면 그것은 실존하는 어떤 대상을 반드시 지칭하거나 실존하지도 않는 대상에게 이름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하니 말이야.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는 실제로는 이름이 아니라 일종의 축약된 기술어인 거야.

- ① 갑은 축약된 기술어가 실존하는 대상을 지칭할 수 없다고 보는군.
- ② 을은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고 보는군.
- ③ 갑은 '폐가수스'를 이름으로, 을은 '폐가수스'를 축약된 기술어로 보는군.
- ④ 갑과 을은 어떤 단어가 이름이라면 그 단어는 실존하는 대상을 반드시 지칭해야 한다고 보는군.

해설 사례를 통해 '이름'과 '축약된 기술어'에 대한 갑과 을의 견해를 드러낸 글이다.

'축약된 기술어'가 실존하는 대상을 지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갑이 아니라 을이다. 을은 어떤 단어가 이름이라면 그것은 실존하는 대상을 지칭하지만,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는 일종의 '축약된 기술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대상이 실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름'과 '축약된 기술어'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② 을은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고 보며, 이를 '축약된 기술어'라고 말한다.

③ 갑은 모든 단어는 무언가의 이름이고, 모든 이름은 실존하는 대상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폐가수스'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폐가수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을은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를 '축약된 기술어'라고 말하는데, '폐가수스'라는 단어는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므로 을은 '폐가수스'를 축약된 기술어로 볼 것이다.

정답률 74.2% 정답 ①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세대에 자신의 모어(母語)를 전달하지 않고자 하는 행위를 ‘언어 자살[language suicide]’이라고 한다. 언어 자살은 명백한 외부의 강압이 없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멕시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토토낙어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도 이 지역 사람들은 모어 대신 스페인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언어 교체 현상을 멕시코 정부가 부추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에 의하면 언어 자살은 ‘정체성 상실, 사회 붕괴, 세대 간 문화적 연속성의 결여’ 등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원인이자 결과이자 배경이다. ‘나는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겠어.’라는 집단적 자각이 한 세대로 하여금 단체로 모어 사용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셈이다.

- ①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 전략 가운데 언어 말살 정책은 언어 자살 현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 ② 모어를 계승하려는 언종의 의지가 언어 자살 현상의 발생 가능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
- ③ 멕시코 정부의 공식적인 언어 정책이 특정 지역의 언어 교체 현상을 유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부모 세대와 다르게 살겠다는 자식 세대의 집단적 자각은 언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해설 ‘언어 자살’의 개념과 특징, 원인 등을 사례를 통해 설명한 글이다. ‘언어 자살’은 자신의 모어를 전달하지 않고자 하는 행위를 뜻하며, 명백한 외부의 강압이 없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서구 열강들의 언어 말살 정책’은 ‘언어 자살’의 개념과도 부합하지 않고, 외부의 강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언어 자살 현상의 사례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②·④ 마지막에 “나는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겠어”라는 집단적 자각이 한 세대로 하여금 단체로 모어 사용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셈이다”라는 문장이 있다. 이를 통해, 부모 세대와 다르게 살겠다는 자식 세대의 집단적 자각이 언어 자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모어를 계승하려는 언종의 의지가 있다면 언어 자살을 막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멕시코 정부의 사례를 설명한 뒤, “이러한 언어 교체 현상을 멕시코 정부가 부추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언급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정답률 88.0% 정답 ①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생물 진화의 유전적 진화 원리가 아닌 것은?

보기

문화의 진화도 역시 생물의 진화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다. 문화 변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어난다. 첫째, 생물 진화의 돌연변이처럼 그 문화 체계 안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의 발명 또는 발견이 있어 존재하는 문화에 추가됨으로써 일어난다. 둘째, 유전자의 이동처럼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접촉함으로써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어떤 문화 요소의 전파가 생길 때 그 문화 요소를 받아들인 사회의 문화에 변화가 일어난다. 셋째, 유전자 제거처럼 어떤 문화 요소가 그 사회의 환경에 부적합할 때 그 문화 요소를 버리고 더 적합한 다른 문화 요소로 대체시킬 때 문화 변동을 일으킨다. 넷째, 유전자 유실처럼 어떤 문화 요소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될 때 잘못되어 그 문화 요소가 후세에 전해지지 못하고 단절되거나 소멸될 때 문화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나 생물 유기체의 진화 원리를 너무 지나치게 문화의 진화에 그대로 비유해서는 안 된다. 문화는 유기체의 진화와 유사하지만 초유기체이기 때문에 생식 과정에 의한 유전과는 다른 학습과 모방에 의해 진화되기 때문이다.

- ① 돌연변이
- ② 유전자 유실
- ③ 유전자 제거
- ④ 적자생존

해설 문화의 진화를 생물의 진화에 비유하여 설명한 글이다. <보기>에서는 생물 진화의 유전적 진화 원리로 돌연변이, 유전자의 이동, 유전자 제거, 유전자 유실을 들고 있지만, 적자생존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답 ④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보기

독일어식이나 일본어식으로 사용해 오던 화학 용어가 국제 기준에 맞는 표기법으로 바뀐다. 산업 자원부 기술 표준원은 주요 원소 이름 109종과 화합물 용어 325종의 새 표기법을 KS 규격으로 제정, 다음 달 6일 고시해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새 표기법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음에 가깝게 정해진 것으로, '요오드'는 '아이오딘', '게르마늄'은 '저마늄' 등으로 바뀐다. 화합물 용어도 구성 원소 이름이 드러나도록 '중크롬산칼륨'을 '다이크로뮴산칼륨'으로 표기한다.

예외적으로 '나트륨'과 '칼륨'은 갑작스러운 표기 변경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대로 표기를 허용하되 새 이름 '소듐', '포타슘'도 병행해 사용토록 했다. 또 '비타민'도 당분간 '바이타민'을 병행 표기한다.

- 2005. 3. 30. 자 ○○신문

- ① '요오드'가 '아이오딘'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음에 가깝다.
- ② '저마늄'은 화합물의 구성 원소 이름을 드러낸 표기이다.
- ③ '나트륨'보다는 '소듐'이 국제 기준에 맞는 표기법이다.
- ④ '비타민'이라는 용어는 KS 규격에 맞지 않으므로 쓰지 않아야 한다.

해설 국제 기준에 맞추어 KS 규격으로 제정한, 화학 용어의 새 표기법에 대해 설명한 신문 기사이다.

1·마지막 문단에서 ③이 정답임을 알 수 있다. 새 표기법은 기존에 사용해 오던 화학 용어를 국제 기준에 맞는 표기법으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소듐'은 '나트륨'의 새 이름이므로, '소듐'이 '나트륨'보다 국제 기준에 맞는 표기법이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음에 가까운 것은 새 표기법이다. 따라서 새 표기인 '아이오딘'이 기존의 표기인 '요오드'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음에 가깝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저마늄'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 정해진 원소 이름이다. 화합물의 구성 원소 이름이 드러나도록 표기한 것은 '다이크로뮴산칼륨'이다.

④ 1·마지막 문단에서 일치하지 않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KS 규격에 맞는 것은 새 표기법이다. '비타민'의 새 표기법은 '바이타민'인데 당분간 이 둘을 병행 표기하기로 했으므로, '비타민'을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린이들은 원래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밖에 없었다고 배웠다. 이렇게 적은 수라면 거의 빈 대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백인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과 미국의 해안 지방을 처음 밟은 유럽인 탐험가들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000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한두 세기에 걸쳐 인디언의 인구는 최대 95%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 인디언들은 그런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므로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 살인적인 질병의 1위 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것은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티푸스 등이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볼거리, 백일해, 페스트, 결핵, 황열병 등이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병원균이 보인 파괴력을 백인들이 직접 목격한 경우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837년 대평원에서 가장 정교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만단족 인디언들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주리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온 한 척의 증기선 때문에 천연두에 걸렸다. 만단족의 한 마을은 몇 주 사이에 인구 2000명에서 4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쇠》

- ① 유럽은 신세계였고, 아메리카는 구세계였다.
- ②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
- ③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백인들의 무기 때문이었다.
- ④ 콜럼버스 이전에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이 있었다.

해설 북아메리카를 정복한 구세계(유럽)의 탐험가들과 함께 따라온 병원균들이, 기존에 그곳에 살던 인디언들의 수를 대폭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내용의 글이다.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2문단의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 인디언들은 그런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므로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 '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 인디언의 인구는 최대 95% 감소', 2문단에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라는 진술이 나온다. 따라서 신세계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북아메리카를, 구세계는 북아메리카를 발견하고 탐험한 유럽인들의 세계, 즉 유럽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만단족 인디언들은 백인들의 무기 때문이 아니라, 백인들로부터 전염된 병원균 때문에 천연두에 걸려 인구가 크게 감소하였다.

④ 1문단에 따르면, 고고학적 발굴과 유럽인 탐험가들의 기록을 연구한 결과,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이전의 북아메리카에는 인디언들이 약 2,000만 명가량 있었다.

정답률 94.7% 정답 ②

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신문학이란 말이 어느 때 누구의 창안으로 쓰이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쓰는 의미의 개념으로 쓰이는 육당(六堂), 춘원(春園) 이후에 비롯하지 않은가 한다.

그전에는 비록 신문학이란 문자를 왕왕 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보다는 훨씬 광의로 사용되었다.

광무(光武) 3년 10월 모(某)일 분의 《황성신문(皇城新聞)》 논설에 성(盛)히 문학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문학은 아니었다. 즉 학문 일반의 의미로 문학이란 말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신문학이란 말은 곧 신학문의 별칭이라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지금 우리로서 보면 실로 가소로운 혼동이다. 그러나 문학이란 말을 literature의 역어(譯語)로 생각지 않고 자의(字義)대로 해석하여 사용한 당시에 있어 이 현상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문학’(literature의 역어) 가운데, 시, 소설, 희곡, 비평을 의미하는 문학, 즉 예술문학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황성신문》 신문 논설을 보면 오히려 학문이란 말을 문학이란 문자로 표현하는 데 문장상의 참신미를 구한 흔적조차 발견할 수 있다.

거기에선 문학이란 말이 분명히 그대로 신학문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문학이란 말에 대한 자의대로의 해석일뿐더러 문학에 대한 동양적 해석, 전통적 이해의 일 연장(延長)이라는 데도 의미가 있다.

- 임화, <개설신문학사>

*광무 3년: 대한제국의 연호. 1899년
 *황성신문: 1898년 창간한 일간 신문
 *역어(譯語): 번역어. 외국어를 번역한 말

- ① ‘신문학’이라는 말의 유래와 현재적 개념을 서술하고 있다.
- ② 현재 ‘신문학’이라는 말은 ‘신학문’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③ ‘문학’은 육당, 춘원 이전의 과거에는 ‘학문 일반’의 의미였기 때문에 《황성신문》에서 나타나는 ‘신문학’이라는 말은 곧, ‘신학문’의 별칭이다.
- ④ 현재 사용하는 ‘문학’이라는 말은 ‘literature’의 역어(譯語)다.

해설 ‘신문학’이라는 개념의 의미 변화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4~6문단에 따르면, ‘신문학’이라는 말이 ‘신학문’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현재가 아니라 《황성신문》에서이다. 문학이 현재 우리가 쓰는 의미의 개념으로 쓰인 것은 육당, 춘원 이후이다.

오답 풀이 ① 신문학이란 말이 어느 때 누가 창안해서 쓰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적 개념인 시, 소설 등의 문학의 의미로 쓰인 것은 육당과 춘원 이후부터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③ ‘신문학’이 현재적 의미로 쓰인 것은 육당, 춘원 이후이다. 또한 광무 3년 《황성신문》에 쓰인 문학은 학문 일반의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신문학이란 말은 곧 신학문의 별칭이었다.

④ 《황성신문》에서 사용한 문학이란 말은 현재 사용하는 문학이란 말과는 달랐다. 거기서는 문학이란 말을 literature의 역어로 생각지 않고 자의대로 해석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는 ‘문학’이라는 말은 예술문학까지 포함된 시, 소설 등을 의미하는 문학, 즉 literature의 역어이다.

정답 ②

다음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05년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기 전까지 물리학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별개의 독립적인 물리량으로 보았다. 공간은 상대적인 물리량인 데 비해, 시간은 절대적인 물리량으로서 공간이나 다른 어떤 것의 변화에 의해 변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시간도 상대적인 물리량으로 보고,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4차원 공간, 즉 시공간[spacetime]이라고 하였다. 이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으로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다만 이 시공간은 시간에 해당하는 차원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4차원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다.

- ①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으로 구별되어 존재했다.
- ② 아인슈타인 등장 전까지 시간과 공간은 독립적인 물리량이 아니었다.
- ③ 아인슈타인 등장 전까지 시간은 상대적인 물리량으로 변화 가능한 것이었다.
- ④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은 시간에 해당하는 차원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었다.

해설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시공간 개념의 특성을 설명한 글이다.

‘이 시공간은 시간에 해당하는 차원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에서 ④가 적절한 이해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으로 구별되지 않으며, 시간과 공간을 합친 4차원 공간이다.

②·③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기 전까지 물리학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독립적인 물리량으로 보았으며, 공간과 달리 시간을, 절대적인 물리량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정답 ④

다음 글의 버크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세기 영국의 사상가 버크는 프랑스 혁명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 대중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다. 일반 국민이란 무지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다지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래서 그는 계약에 의해 선출된 능력 있는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지도자로서 국가를 운영케 하는 방식의 대의제를 생각해 냈다. 재산이 풍족하여 교육을 충분히 받아 사리에 밝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다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가 말하는 대의제란 지도자가 성숙한 판단과 계몽된 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는 것을 요체로 한다. 여기서 대의제의 본질은 국민을 대표하기보다 국민을 대신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즉 버크는 대중이 그들 자신을 위한 유·불리의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분별력 있는 지도자가 독립적 판단을 통해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했던 것이다. 버크에 따르면 국민은 지도자와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했다기 보다는 '신탁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도자에게는 개별 국민들의 요구와 입장을 성실하게 경청해야 할 의무 대신에, 국민 전체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서 대신할 의무가 있다. 그는 만약 지도자가 국민의 의견을 좇아 자신의 판단을 단념한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 ① 지도자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② 국민은 지도자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 ③ 성공적인 대의제를 위해서는 탁월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국민의 자질이 중요하다.
- ④ 국민은 지도자를 선택한 이후에도 다수결을 통해 지도자의 결정에 대한 수용과 비판의 지속적인 태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

해설 버크의 대의제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버크는 국민들이 그들 자신을 위한 유·불리의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여 분별력 있는 지도자와 국민이 신탁 계약을 맺은 뒤, 지도자가 국민을 대신해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본다. 즉 국민은 무지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으므로 모든 권리를 지도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신탁 계약(信託契約): 「법률」 상대방을 신뢰하여 경제적 목적 이상의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 가운데 계약에 의한 것, 유언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오답 풀이 ① 버크는 지도자가 국민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③ 버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무지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버크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국민의 자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 ④ 국민이 다수결을 통해 지도자의 결정에 수용과 비판의 태도를 보여 줘야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버크는 국민을 무지하다고 전제하여 지도자가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답 ②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로 확증 편향을 들 수 있다. 확증 편향이란 진리 여부가 불확실한 가설 혹은 믿음을 부적절하게 강화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뉴스 수용자의 사전 신념에서 비롯된다. 확증 편향을 보이는 뉴스 수용자는 자신이 지닌 신념을 정당화하거나 확증해 주는 뉴스만을 수용하기 때문에 뉴스 정보 자체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인지적 행위를 오히려 수행하지 못한다. 이러한 수용자들은 뉴스의 출처나 정보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자신의 신념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는 뉴스를 선별하여 그 뉴스의 정보를 그대로 수용한다. 확증 편향에 빠진 뉴스 수용자들은 자기 판단에 대한 합리화를 위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찾아 수용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더욱 강화해 간다. 이러한 수용자들은 가짜 뉴스가 사실이 아닌 정보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지해 준다면 가짜 뉴스라 하더라도 그대로 수용하고 마는 것이다.

- ① 확증 편향은 뉴스 수용자의 사전 신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 ② 확증 편향은 뉴스의 비판적 수용에 관련된 인지 활동 수행을 방해한다.
- ③ 확증 편향에 빠진 뉴스 수용자들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뉴스 정보를 수용한다.
- ④ 확증 편향을 보이는 뉴스 수용자들은 가짜 뉴스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해설 확증 편향을 보이는 뉴스 수용자의 행동을 통해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원인을 설명한 글이다.

“확증 편향이란 ~ 뉴스 수용자의 사전 신념에서 비롯된다”로 보아, 확증 편향이 뉴스 수용자의 사전 신념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확증 편향은 뉴스 수용자의 신념을 정당화하거나 확증해 주는 뉴스만을 수용하게 하여 뉴스 정보 자체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인지적 행위를 오히려 수행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 ③ 확증 편향에 빠진 뉴스 수용자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지해 준다면 가짜 뉴스라 하더라도 그대로 수용한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 ④ “확증 편향을 보이는 뉴스 수용자는 ~ 뉴스 정보 자체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인지적 행위를 오히려 수행하지 못한다”에서 알 수 있다.

정답 ①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지털 문해력이 책 읽기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 주는 조사 결과가 있다. 2016년 국제 읽기 능력 평가에서 전 세계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린트(인쇄물) 읽기’ 능력과 ‘디지털 읽기’ 능력을 종합한 문해력을 평가했다. 디지털 읽기 능력 평가는 정보 판독에 초점을 맞춰 컴퓨터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협회는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에서 정보 판독을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는 인쇄물의 글을 읽을 때와 다른 독해 기술과 전략을 사용한다. 그럼에도 인쇄물 읽기 능력은 디지털 읽기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책 읽기에서 동원되는 천천히 읽기, 면밀하게 읽기, 전체적으로 읽기와 같은 독해 기술들이 인터넷 정보 탐색과 내용 이해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아이가 디지털 시대를 앞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읽기 능력, 즉 문해력에서 앞서야 디지털 시대의 진짜 승리가 될 수 있다.

- ① 디지털 기기는 문해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 ② 디지털 시대를 앞서 가려면 문해력을 신장해야 한다.
- ③ 인쇄물 읽기 능력은 디지털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 ④ 인쇄물 독해 기술과 정보 판독 목적의 인터넷 독해 기술은 다르다.

해설 책 읽기 능력에서 디지털 문해력이 나온다는 견해를 제시한 글이다. 디지털 기기가 문해력을 저하시킨다는 내용은 제시문에 없다.

- 오답 풀이** ② ‘문해력에서 앞서야 디지털 시대의 진짜 승리가 될 수 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인쇄물 읽기 능력은 디지털 읽기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변인이 된다’에서 알 수 있다.
 ④ “인터넷에서 정보 판독을 목적으로 글을 읽을 때는 인쇄물의 글을 읽을 때와 다른 독해 기술과 전략을 사용한다”에서 알 수 있다.

정답 ①

다음 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대의 디지털 문명은 로마자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그만큼 로마자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글처럼 비교적 후대에 만들어진 문자 중에서 디지털 문명에 가장 잘 적응하는 문자는 한글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한글이 디지털 문명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편리한 문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정보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에 충분하다. 타자기 시대에 한글은 한자나 가나와 같은 음절 문자보다 기계화에 유리한 점이 분명 있었지만 ‘모아쓰기’라는 창제 당시의 표기법 때문에 로마자 타자기의 효율성을 따라가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풀어쓰기’ 주장이 있었다. 예를 들어 ‘병아리’를 ‘ㅂㅇ ㅅ ㅏ ㄹ ㅓ’로 풀어쓰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결국 디지털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아쓰기’를 자동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 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로마자는 유리하다.
- ② 한국은 한글을 통해 세계적인 정보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
- ③ 풀어쓰기는 모아쓰기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 ④ 모아쓰기를 구현하는 기술이 생기면서 풀어쓰기 주장은 사라졌다.

해설 디지털 문명에 잘 적응한 문자인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밝힌 글이다. 한글이 로마자 타자기의 효율성을 따라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때 풀어쓰기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풀어쓰기가 모아쓰기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는 내용은 제시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로마자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데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② “한글이 디지털 문명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편리한 문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정보 기술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에 충분하다”에서 알 수 있다.
 ④ 컴퓨터 프로그램, 즉 컴퓨터 기술로 모아쓰기를 구현하게 됨에 따라 풀어쓰기 주장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정답 ③





‘도산 노인’의 생각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도산십이곡〉은 도산 노인이 지은 것이다. 노인이 이를 지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나라의 가곡은 대체로 음란하여 죽히 말할 것이 없으니 〈한림별곡〉과 같은 것도 문인의 입에서 나왔으나, 교만하고 방탕하며 겹쳐서 겹잡지 못하고 장난기가 있어 더욱 군자가 숭상해야 할 바가 아니다. 다만 근세에 이별의 〈육가〉라는 것이 있어 세상에 성대하게 전해지는데, 저것보다 낫기는 하나 또한 세상을 희롱하는 불공한 뜻만 있으며, 운운후의 실질이 적은 것을 애석하게 여겼다.

노인은 평소 음악을 이해하지는 못하나 오히려 세속의 음악이 듣기 싫은 것을 알아, 한가히 살면서 병을 돌보는 여가에 무릇 성정에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매양 시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는 달라서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로 부를 수는 없다. 만약 노래로 부르려면 반드시 시속의 말로 엮어야 되니, 대개 우리나라 음절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일찍이 대략 이별의 노래를 본떠 도산육곡이란 것을 지은 것이 돌이니, 그 하나는 언지(言志)이고 다른 하나는 언학(言學)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익혀서 노래하게 하여 안식에 기대어 이를 듣고자 했다.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고 뛰게 한다면, 비루하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어 버리고, 느낌이 일어나 두루 통하게 될 것이니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함이 없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 보면 나의 자취가 자못 어그러졌으니, 이 같은 한가한 일이 혹시나 시끄러운 일을 야기하게 될지 모르겠고, 또 곡조에 없었을 때 음절이 맞을지도 알 수 없어 우선 한 부를 베껴 상자 속에 담아 두고, 때때로 꺼내 완상하여 스스로를 반성하며, 또 훗날에 보는 자가 이를 버리거나 취하기를 기다릴 따름이다.

-이황, 〈도산십이곡발〉

- ① 우리말 노래가 대체로 품격이 떨어진다고 보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 ② 우리나라에서 한시를 노래로 부르는 전통을 되살리려고 한다.
- ③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에게도 유익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④ 자신이 노래를 지은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 ⑤ 자신이 지은 노래가 후세에 전해져서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을 기대한다.

해설 이황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의 발문으로, 〈도산십이곡〉을 짓게 된 이유와 우리 가요에 대한 비평을 담은 글이다.

2~3문단에서, 노인은 자신이 지은 시를 노래로 부를 수 없었고 노래로 부르려면 반드시 시속의 말로 엮어야 됐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이별의 노래를 본떠 도산육곡을 지어 아이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노인은 아이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한시가 아닌 우리말로 도산육곡을 지은 것이다.** 따라서 도산 노인이 한시를 노래로 부르게 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1문단의 “우리나라의 가곡은 대체로 음란하여 ~ 세상을 희롱하는 불공한 뜻만 있으며, 운운후의 실질이 적은 것을 애석하게 여겼다”에서 알 수 있다.
- ③ 3문단의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익혀서 노래하게 하여 ~ 서로 유익함이 없지 않을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 ④ 마지막 문단의 “이 같은 한가한 일이 혹시나 시끄러운 일을 야기하게 될지 모르겠고”에서 알 수 있다.
- ⑤ 마지막 문단의 “우선 한 부를 베껴 ~ 훗날에 보는 자가 이를 버리거나 취하기를 기다릴 따름이다”에서 알 수 있다.

정답 ②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신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인간의 육체는 비물질적 실체인 영혼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영혼이 때때로 유령이나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이론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다. 그 유령이 어떻게 유형의 물질과 상호 작용하는가? 무형의 비실체가 어떻게 번쩍이고 쿵 찌르고 뻑 소리를 내는 외부 세계에 반응하고 팔다리를 움직이게 만드는가? 그뿐 아니라 정신은 곧 뇌의 활동임을 보여 주는 엄청난 증거들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다. 오늘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비물질적이라 생각했던 영혼도 칼로 해부되고, 화학 물질로 변질되고, 전기로 나타나거나 사라지고, 강한 타격이나 산소 부족으로 인해 소멸되곤 한다. 현미경으로 보면 뇌는 풍부한 정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대단히 복잡한 물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

정신을 어떤 특별한 형태의 물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피노키오는 목수 제페토가 발견한, 말하고 웃고 움직이는 마법의 나무에서 생명력을 얻는다. 그러나 애석한 일이지만 그런 신비의 물질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우선 뇌 조직이 그 신비의 물질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윈은 뇌가 정신을 ‘분비한다’고 적었고, 최근에 철학자 존 설은 유방의 세포 조직이 젖을 만들고 식물의 세포 조직이 당분을 만드는 것처럼, 뇌 조직의 물리 화학적 특성들이 정신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뇌종양 조직이나 접시 안의 배양 조직은 물론이고 모든 동물의 뇌 조직에도 똑같은 종류의 세포막, 기공, 화학 물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 그 모든 신경 세포 조직이 동일한 물리 화학적 특성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들 모두가 인간과 같은 지능을 보이진 않는다. 물론 인간 뇌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의 어떤 측면이 우리의 지능에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물리적 특성들로는 충분하지 않다. 벽돌의 물리적 특성으로는 음악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한 것과 같다. 중요한 것은 신경 세포 조직의 ‘패턴’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 ① 다윈과 존 설은 뇌 조직이 인간 정신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 ②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의 물리적 특성은 인간 지능의 필요충분조건이다.
- ③ 지능에 대한 전통적 설명 방식은 내적 모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 ④ 뇌의 물리적 특성보다 신경 세포 조직의 '패턴'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
- ⑤ 뇌와 정신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있다.

해설 정신이 무형의 비실체라는 전통적 견해와, 정신은 특별한 형태의 어떤 물질에서 발생한다는 견해의 각각의 한계를 설명한 글이다.

2문단의 "물론 인간 뇌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의 어떤 측면이 우리의 지능에 필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물리적 특성들로는 충분하지 않다"를 보면, 인간의 지능에서 뇌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의 물리적 특성은 필수적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따라서 뇌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의 물리적 특성이 인간 지능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의 "다윈은 뇌가 정신을 '분비한다'라고 적었고, 최근에 철학자 존 설은 ~ 뇌 조직의 물리 화학적 특성들이 정신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제시문에서는 뇌의 활동이 정신(영혼, 지능)을 만들어 낸다는 현대의 연구 및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1문단에서는 정신(영혼, 지능 등)을 무형의 비실체라고 설명한 전통적 방식에 대해 무형의 비실체인 유령(영혼)이 유형의 물질과 상호 작용하고, 영혼이 칼로 해부되고 화학 물질로 변질되는 등의 증거들을 제시하여 전통적 설명 방식의 내적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비물질이고 실체가 없는 유령(영혼)이 유형의 물질과 상호 작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④ 2문단의 "물론 인간 뇌를 ~ 그 물리적 특성들로는 충분하지 않다. ~ 중요한 것은 신경 세포 조직의 '패턴'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⑤ 1문단의 "정신은 곧 뇌의 활동임을 보여 주는 엄청난 증거들도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다. ~ 현미경으로 보면 뇌는 풍부한 정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대단히 복잡한 물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에서 알 수 있다.

정답 ②

181

2022 국회직 8급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데이터 권력은 역사의 객관적이고 원본에 입각한 사실 기록의 방식과 해석에도 심각한 변화를 일으킨다. 디지털 기록은 알고리즘 분석을 위해 축적되는 재료에 불과하고, 개별의 구체적 가치와 질감을 거세한 무색무취의 건조한 데이터가 된다. 이용자들의 정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어딘가에 데이터 조각으로 저장되지만, 누군가에 의해 알고리즘 명령으로 호출되기 전까지 그 어떤 사건사적·사회사적 의미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어떤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남기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왜 특정의 데이터가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지 등에

관한 역사성과 객관성을 중시하는 역사 기록학적 물음들은, 오늘날 인간 활동으로 뿔어져 나오는 비정형 데이터에 의존한 많은 닷컴 기업들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 데이터 취급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는 데이터 기업 자본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인간의 움직임과 활동, 감정의 흐름 모두를 실시간으로 저장해 필요에 의해 잘 짜인 알고리즘으로 원하는 정보 패턴이나 관계를 찾는 데 골몰한다. 진본성이나 공공성을 담지한 공식 기록을 선별해 남기려는 역사학적 관심사는, 이 새로운 무차별적인 기억과 감정적 흐름의 공장을 돌리는 데이터 권력 질서와 자주 경합하거나 때론 데이터 권력에 의해 억압당한다.

새로운 데이터 권력의 질서 속에서는 개별적 기록이 지닌 가치와 진실 등 그 사회사적 사건의 특수한 흔적들이 거의 완전히 지워진다. 지배적 알고리즘의 산식에는 개인적 차이, 감수성, 질감들이 무시되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부유하는 집단 욕망들의 경향과 패턴을 포착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 ① 공적이고 질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선별하려는 역사 기록학적 시도는 데이터 권력에 의해 방해받는다.
- ② 거대한 기업을 경영하는 데이터 권력은 개인들의 섬세한 차이를 기록한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 ③ 데이터 가공을 통해 생존하는 데이터 기업은 알고리즘 산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한다.
- ④ 데이터 권력의 지배적 알고리즘을 수용함으로써 역사학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 ⑤ 역사학은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집단의 움직임을 파악하려 시도한다.

해설 데이터 권력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역사 기록학적 물음은 특정의 데이터가 왜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지 등에 관한 역사성과 객관성을 중시한다. 그런데 진본성이나 공공성을 담지한 공식 기록을 선별해 남기려는 역사학적 관심사는 데이터 권력 질서와 자주 경합하거나 때론 데이터 권력에 의해 억압당한다. 따라서 ①이 적절한 이해이다.

오답 풀이 ② 데이터 기업 자본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이러한 데이터 권력의 지배적 알고리즘의 산식에는 개인적 차이나 감수성 등은 무시되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부유하는 집단 욕망들의 경향과 패턴을 포착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따라서 데이터 권력은 개인들의 섬세한 차이를 기록한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③ 1문단에 따르면, 데이터 가공을 통해 생존하는 데이터 기업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인간의 움직임과 활동, 감정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저장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데이터 권력은 개별적 기록이 지닌 가치와 진실 등 그 사회사적 사건의 특수한 흔적을 지운 채 집단 욕망들의 경향과 패턴을 포착하는 것만을 중시한다. 따라서 지배적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⑤ 비정형 데이터에 의존한 많은 닷컴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원하는 정보 패턴이나 관계를 찾는 데 골몰한다. 반면 진본성이나 공공성을 담지한 공식 기록을 선별해 남기려는 역사학적 관심사는, 이러한 데이터 권력 질서와 자주 경합하거나 때론 이들에 의해 억압당한다. 즉 역사학이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해 집단의 움직임을 파악하려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다음 글을 토대로 하여 인물 간의 관계를 예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행에서 상생이란 기르고, 북돋우고, 촉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상극이란 억압하고, 구속하고, 통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오행 사이에는 모두 상생과 상극의 관계가 존재한다. 상생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물의 발전과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상극 관계가 없으면 사물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중에 균형과 조화를 유지할 수 없다. 상생 관계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이고 상극 관계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이다.

〈서유기〉의 등장인물은 오행의 생극 관계로 형상화되어 있다. 작품에서 삼장은 오행 가운데 수에 속한다. 삼장과 상생 관계에 있는 인물은 목인 저팔계이고 상극 관계에 있는 인물은 화인 손오공이다. 삼장이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저팔계를 편애하는 것은 그들이 상생 관계에 있기 때문이고, 손오공에게 각박한 것은 상극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장과 손오공 사이에는 상극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생 관계도 존재한다. 손오공은 화인 동시에 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금이 수를 낚는 상생 관계이므로 손오공과 삼장 사이는 상호 보완의 관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손오공은 서행 길을 가는 동안 삼장의 앞길을 가로막는 요괴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삼장이 미망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마다 그를 정신적으로 인도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마지막으로 사오정은 오행에서 토에 속한다. 사오정은 참을성 많고 침착하며 사려 깊은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① 손오공과 저팔계 사이에는 상생 관계가 존재한다.
- ② 손오공과 저팔계 사이에는 상극 관계가 존재한다.
- ③ 손오공과 사오정 사이에는 상극 관계가 존재한다.
- ④ 삼장과 저팔계 사이에는 상생 관계가 존재한다.
- ⑤ 사오정과 저팔계 사이에는 상극 관계가 존재한다.

해설 오행에서 상생과 상극 관계를 〈서유기〉의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설명한 글이다.

2문단에 따르면, 손오공은 화인 동시에 금에 속하고, 사오정은 토에 속한다. 그런데 1문단에 따르면, 화와 토, 토와 금은 상생 관계[화생토, 토생금]이므로 손오공과 사오정은 상생 관계이다. 화 또는 금과, 토 사이의 관계가 상극이라는 내용은 없으므로 ③이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② 손오공은 화인 동시에 금에 속하고, 저팔계는 목에 속한다. 목생화, 금극목이므로 둘 사이에는 상생 관계와 상극 관계 모두가 존재한다.
 ④ 2문단의 '삼장과 상생 관계에 있는 인물은 목인 저팔계이고'에서 알 수 있다.
 ⑤ 사오정은 토에 속하고, 저팔계는 목에 속한다. 목극토이므로 둘 사이에는 상극 관계가 존재한다.

정답 ③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시는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을 수행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자체 확보한 공공 데이터와 ○○시로부터 받은 복지 사업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공감 지도'를 제작하고, 복지 기관 접근성 분석을 통해 취약 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 공감 지도는 공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에 소재한 복지 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항목과 이를 필요로 하는 복지 대상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수급자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 이 지도를 활용하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지역과 수급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으며, 생필품 지원이나 방문 상담 등 복지 기관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고, 최적의 복지 기관 설립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시는 그동안 복지 기관으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내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이에 교통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복지 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발견하고 복지 셔틀버스 노선을 4개 증설할 계획을 수립했다.

- 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복지 기관과 수급자 거주지 사이의 거리는 복지 혜택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
- ③ 복지 기관 접근성 분석 결과는 복지 셔틀버스 노선 증설의 근거가 된다.
- ④ 복지 공감 지도로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해설 복지 공감 지도로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2문단에 따르면, 복지 공감 지도를 활용하면 복지 혜택이 필요한 지역과 수급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으며, 복지 기관의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고, 최적의 복지 기관 설립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의 '빅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 수행'에서 복지 서비스 분석 사업이 빅 데이터를 활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복지 기관 접근성 분석을 통해 취약 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에서, 이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각지대(死角地帶): 관심이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구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③ 마지막 문단에서 적절한 이해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 집중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에서 복지 기관과 수급자 거주지 사이의 거리가 복지 혜택의 정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근거로 복지 기관 방문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 셔틀버스 노선을 4개 증설할 계획을 수립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답률 94.8% 정답 ④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대 로마에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불과 21세였다. 아동을 넘긴 성인은 보통 70~80세 정도 살았지만 출생아의 1/3이 1세 전에, 그 이후 살아남은 아이의 절반이 10세 전에 사망했다. 이렇게 아동 사망률이 높았던 것은 미생물로 인한 질병 때문이었는데, 이를 밝혀 치료의 길을 연 사람은 파스퇴르였다.

파스퇴르는 1861년 미생물이 활동한 결과로 발효가 일어난다는 것을 밝히고, 이후 음식물의 발효나 부패가 공기 중의 미생물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음식물에서 저절로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나 음식물을 발효·부패시킨다는 자연 발생설을 반박하고 미생물의 존재를 명확히 한 것이었다. 1863년에는 음식물의 맛과 질감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살균하는 방법인 '파스퇴리제이션(pasteurization)'을 발견했다. 이것은 끓는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가열하는 방식으로, 우유의 경우 밀폐한 채로 63~65°C에서 30분 정도 가열하는 살균법이다.

이러한 연구에 이어 파스퇴르는 사람과 가축에게 생기는 질병의 원인이 미생물임을 밝혔다. 나아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치료법도 제시하였다. 광견병, 탄저병 등에 대한 연구는 그의 큰 업적으로 남아있다.

- ① 고대 로마인의 평균 수명이 낮았던 것은 아이들이 질병으로 많이 죽었던 것이 한 원인이었다.
- ② 파스퇴르는 음식물의 발효와 부패에 대해 자연 발생설을 부인하였다.
- ③ 끓는점 이하로 가열하는 파스퇴리제이션 살균법은 음식물의 맛과 질감을 높인다.
- ④ 파스퇴르의 미생물 연구는 질병으로 인한 아이들의 사망률을 줄이는 데에 기여했다.

해설 2문단에 따르면, 파스퇴르는 끓는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가열하는 방식인 '파스퇴리제이션'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음식물의 맛과 질감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살균하는 방법이다. 즉 파스퇴리제이션 살균법이 음식물의 맛과 질감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알 수 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1세였는데, 이는 미생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출생아의 1/3이 1세 전에, 그 이후 살아남은 아이의 절반이 10세 전에 사망했기 때문이다.

② 2문단에서 알 수 있다. 파스퇴르는 음식물의 발효나 부패가 공기 중 미생물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이는 자연 발생설을 부인한 것이다.

④ 1·마지막 문단에서 알 수 있다. 고대 로마에서 아동 사망률이 높았던 이유는 미생물로 인한 질병 때문이었는데, 파스퇴르는 이 질병을 치료할 길을 열었다. 그는 질병의 원인이 미생물임을 밝혔고, 이 미생물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처음 만들고 치료법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파스퇴르의 미생물 연구는 질병으로 인한 아이들의 사망률을 줄이는 데 기여한 셈이 된다.

정답률 91.9% 정답 ③

다음 글의 '이론 X'에 근거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 서 모두 고르면?

이론 X에 따르면, 'A가 B의 원인이다.'는 '만약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와 같다. 예를 들어 '기온이 낮아진 것이 온도계 눈금이 내려간 원인이다.'는 '만약 기온이 낮아지지 않았더라면 온도계 눈금은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와 같다.

이론 X에서 '만약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상황보다, A가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난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가령 '만약 기온이 낮아지지 않았더라면 온도계 눈금은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은, 기온이 낮아지지 않고 온도계 눈금이 내려간 상황보다, 기온이 낮아지지 않고 온도계 눈금이 내려가지 않은 상황이 기온이 낮아졌고 온도계 눈금이 내려간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 보기
- ㉠ 갑의 흡연이 갑의 폐암의 원인이라면, 갑이 흡연하지 않았더라면 갑은 폐암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 ㉡ 갑이 흡연을 치지 않고 갑의 팀이 승리한 상황보다, 갑이 흡연을 치지 않고 갑의 팀이 승리하지 않은 상황이 갑이 흡연을 치고 갑의 팀이 승리한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은, 갑의 흡연이 그 팀의 승리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 ㉢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음에도 까마귀가 난 것이 배가 떨어진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보다,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진 상황이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진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 이론 X에서는 'A가 B의 원인이다'와 같은 의미의 말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만약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에서, A에 '갑의 흡연'을, B에 '갑의 폐암'을 대입시키면 ㉠이 성립한다. 또한 '만약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상황보다 ~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에서 A에 '갑의 흡연'을, B에 '갑의 팀 승리'를 대입하면 ㉡이 성립한다.

오답 풀이 ㉢에서 A를 '까마귀가 날', B를 '배가 떨어짐'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론 X를 보다 간략히 설명하기 위해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사실'을 ㉠, 'A가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은 사실'을 ㉡,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난 사실'을 ㉢이라고 하자. 이론 X에 따르면, ㉠, ㉡, ㉢의 관계(유사 정도)는 '만약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에서 비롯하는데, 이때 A와 B는 인과 관계(1문단)이다. 그런데 ㉢은, A(까마귀가 날)가 B(배가 떨어짐)의 원인이 아니다. 따라서 제시문만으로는 ㉢과 같이 A가 B의 원인이 아닐 경우 '만약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은 ㉠, ㉡, ㉢의 관계를 알 수 없다.

정답률 49.1% 정답 ①



〈보기〉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한다.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가 실제 세계의 사실과 일치하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 가령, '사과는 과일이다.'는 실제 세계의 사실과 일치하므로 참인 명제지만 '새는 무생물이다.'는 실제 세계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거짓인 명제이다. 이와 같이 명제가 지닌 진리치가 무엇인지 밝혀 주는 조건을 진리 조건이라고 한다. 명제 논리의 진리 조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명제는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하며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거나 참이면서 거짓인 경우는 없다. 명제 P가 참이면 그 부정 명제 ~P는 거짓이고 ~P가 참이면 P는 거짓이다. 명제 P와 Q가 AND로 연결되는 $P \wedge Q$ 는 P와 Q가 모두 참일 때에만 참이다. 명제 P와 Q가 OR로 연결되는 $P \vee Q$ 는 P와 Q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참이기만 하면 참이 된다. 명제 P와 Q가 IF ... THEN으로 연결되는 $P \rightarrow Q$ 는 P가 참이고 Q가 거짓이면 거짓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참이 된다.

- ① 명제 논리에서 '모기는 생물이면서 무생물이다.'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명제 논리에서 '파리가 새라면 지구는 둥글다.'는 거짓이다.
- ③ 명제 논리에서 '개가 동물이거나 컴퓨터가 동물이다.'는 참이다.
- ④ 명제 논리에서 '늑대는 새가 아니고 파리는 곤충이다.'는 참이다.

해설 ②에서 '파리가 새라면 지구는 둥글다'는 명제 P('파리가 새다')와 Q('지구는 둥글다')가 IF ... THEN으로 연결되는 $P \rightarrow Q$ 이다. 이 경우에는 P가 참이고 Q가 거짓이어야만 거짓이 된다. 그런데 파리는 새가 아니고[P가 거짓], 지구는 둥글기[Q는 참]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이 아니라 참이 된다.

- 오답 풀이**
- ① "모든 명제는 참이든지 거짓이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하며 ~ 참이면서 거짓인 경우는 없다"와 부합하는 내용이다. 즉 '모기는 생물이면서 무생물이다'는 참이면서 거짓인 경우이므로 성립될 수 없다.
 - ③ "명제 P와 Q가 OR로 연결되는 $P \vee Q$ 는 P와 Q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참이기만 하면 참이 된다"와 부합하는 내용이다. 즉 '개가 동물이다(P)'와 '컴퓨터가 동물이다(Q)' 중 Q는 거짓이지만 P가 참이므로 '개가 동물이거나 컴퓨터가 동물이다($P \vee Q$)'는 참이다.
 - ④ "명제 P와 Q가 AND로 연결되는 $P \wedge Q$ 는 P와 Q가 모두 참일 때에만 참이다"와 부합하는 내용이다. 즉 '늑대는 새가 아니다(P)'와 '파리는 곤충이다(Q)'는 둘 다 참이므로, '늑대는 새가 아니고 파리는 곤충이다($P \wedge Q$)'는 참이다.

정답 ②

〈보기〉의 (가)~(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백호 임제가 말에 올라타려 할 때 종이 나서서 말했다. "나리, 취하셨습니다. 한쪽은 짚신을 신으셨네요." 그러나 백호가 냅다 꾸짖었다. "길 오른쪽을 가는 이는 내가 가죽신을 신었다고 할 테고 길 왼쪽을 가는 이는 내가 짚신을 신었다고 할 게다. 내가 염려할 게 뭐냐." 이것으로 따져 보면 천하에서 발보다 쉽게 눈에 띄는 것이 없지만 보는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서 가죽신을 신었는지도 분간하기 어렵다.

(나) 높은 살구나무 아래, 작은 집 한 채! 방은 시렁과 책상 따위가 삼분의 일이다. 손님 몇이 이르기라도 하면 무릎이 부딪치는 너무도 협소하고 누추한 집이다. 하지만 주인은 편안하게 독서와 구도(求道)에 열중한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 작은 방에서 몸을 돌려 앉으면 방위가 바뀌고 명암이 달라지지. 구도란 생각을 바꾸는 데 달린 법, 생각이 바뀌면 그 뒤를 따르지 않을 것이 없지. 자네가 내 말을 믿는다면 자네를 위해 창문을 밀쳐 줘세. 옷은 사이에 벌써 밝고 드넓은 공간으로 올라갈 걸세."

(다) 어항 속 금붕어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지만, 금붕어도 둥근 어항 바깥의 물체들의 운동을 지배하는 과학 법칙들을 정식화(定式化)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힘을 받지 않는 물체의 운동을 우리라면 직선 운동으로 관찰하겠지만, 어항 속 금붕어는 곡선 운동으로 관찰할 것이다. 그럼에도 금붕어는 자기 나름의 왜곡된 기준 틀(Frame of Reference)을 토대로 삼아 과학 법칙들을 정식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법칙들은 항상 성립하면서 금붕어로 하여금 어항 바깥의 물체들의 미래 운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금붕어가 세운 법칙들은 우리의 틀에서 성립하는 법칙들보다 복잡하겠지만, 복잡함이나 단순함은 취향의 문제이다. 만일 금붕어가 그런 복잡한 이론을 구성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타당한 실재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 ① (가)의 임제는 사람들이 주관적 관점에서 대상을 인식한다고 여겼다.
- ② (나)의 집주인은 객관적 조건과 무관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상을 수용했다.
- ③ (다)의 금붕어는 왜곡된 기준 틀로 과학 법칙을 수립할 수 있다.
- ④ (가), (나), (다)는 주관적 인식의 모순을 분명하게 밝혔다.

출전 (가) 박지원, <낭환집서(말뚝구리 시집)>
해설 '주관적 인식의 모순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진술은 (가), (나), (다) 모두와 부합하지 않는다.

(가)에서는 주관적 인식에 따라 대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으므로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다. (나)에서는 너무도 협소한 방이지만 생각에 따라 구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나'의 말을 통해, 걸로 드러나는 열악한 조건은 생각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 극복될 수 있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다



다. (다)에서는, 어항 속 금붕어가 비록 우리의 시각과 다른, 왜곡된 기준 틀을 토대로 삼아 어항 바깥 물체들의 과학 법칙들을 정식화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타당한 실재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다)는 모두 주관적 인식으로 인한 사고를 인정한 것일 뿐 주관적 인식이 지닌 모순을 밝힌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가)의 “길 오른쪽을 가는 이는 ~ 왼쪽을 가는 이는 내가 직신을 신었다고 할 게다”에서 임제가, 사람들은 자신에게 보이는 쪽의 신발만으로 그 신발 전체를 판단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즉 임제는, 사람들이 주관적 관점에서 대상을 인식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 ② (나)에서 집주인은 ‘협소하고 누추한’ 집의 객관적인 조건 속에서도 편안하게 독서와 구도에 열중하고 있으므로 집의 협소함·누추함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용한 것이다.
- ③ (다)의, 어항 속 금붕어는 자기 나름의 ‘왜곡된 기준 틀’을 토대로 삼아 어항 바깥에 있는 물체들의 운동을 지배하는 과학 법칙들을 정식화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정답 ④

220

2022 군무원 9급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라캉의 생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라캉에 의하면, 사회화 과정에 들어서기 전의 거울 단계에서, 자기와 자기 영상, 혹은 자기와 어머니 같은 양자 관계에 새로운 타인, 다시 말해 아버지, 곧 법으로서의 큰 타자가 개입하는 삼자 관계, 즉 상징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 형성은 제3자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비집고 들어섬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상징적 질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미 그 질서가 구조적으로 인간에게 기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후천적, 인위적으로 그 구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간은 단지 구조되어 있는 그 질서에 참여할 뿐이다.

말하자면 구조란 의식되지 않은 가운데 인간 문화의 기저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라캉에게 있어서, 주체의 존재 양태는 무의식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다. 주체 자체가 무의식적인 것으로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주체는 무의식적 주체이다.

라캉에게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는 사실상 분리되어 있다. 그는 나의 사유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라캉의 경우, ‘나는 생각한다’라는 의식이 없는 곳에서 ‘나는 존재’하고, 또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캉은 무의식은 타자의 진술이라고 말한다. 바꾸어 말한다면 언어 활동에서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타자로부터 발원되어 우리에게 온 것이다. ‘무의식은 주체에 끼치는 기표의 영향’이라고 라캉은 말한다.

이런 연유에서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논리가 라캉에게 성립된다. 의식의 차원에서 ‘내가 스스로 주체적’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허상이다. 실상은, 나의 진술은 타자의 진술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이다. 나의 욕망도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구성된다. 내가 스스로 원한 욕망이란 성립하지 않는다.

- ① 주체의 무의식은 구조화된 상징적 질서에 의해 형성된다.
- ② 주체의 의식적 사유와 행위에 의해 새로운 문화 질서가 창조된다.
- ③ 대중 매체의 광고는 주체의 욕망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 ④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옳지 않다.

해설 라캉에 의하면, 양자 관계에 타인이 개입하는 상징적 질서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인간은 구조되어 있는 그 질서에 참여할 뿐이며, ‘그 구조는 의식되지 않은 가운데 인간 문화의 기저에서 → 인간의 행위를 규정한다.’ 따라서 주체의 의식적 사유와 행위가 새로운 문화 질서를 창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③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나의 진술이나 욕망은 타자의 진술이나 욕망에 의해서 구성된다. 따라서 타자의 욕망인 대중 매체의 광고는 나, 즉 주체의 욕망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④ 3문단에 따르면, 라캉은 나의 사유와 나의 존재는 분리되어 있으므로, 나의 사유가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나의 사유가 있는 곳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라캉의 입장에서 옳지 않은 명제가 된다.

정답률 74.3% 정답 ②

공감 TIP



추론 문제가 내용 일치 문제보다 난도가 더 높은 편이지. 하지만 추론 문제도 결국 내용 일치를 기반으로 해서 풀어야 하니 둘이 크게 다르진 않을 거야. 너무 겁먹지 말자!

221

2022 군무원 7급

다음 글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 언어 순화의 방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반 소비자들은 ‘다방’보다는 ‘커피숍’에 갈 때에, ‘커피숍’보다는 ‘카페’에 갈 때에 더 많은 금전 지출을 각오한다. 목장에서 소의 ‘젖’을 짜서 공장에 보내면 용기에 담아 넣고 ‘우유’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는다. 그리고 이것을 서비스 업소에서 고객에게 ‘밀크’로 제공하면서 계속 부가가치가 높아져 간다. 가난한 사람은 ‘단칸방’에 세 들고 부자는 ‘원룸’에서 사는 것을 언어를 통하여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곧 토착어에서 한자어로, 또 서구 외래어로 변신할 때마다 당당히 이윤을 더 비싸게 불일 수 있는 위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외래어가 상품의 사용 가치보다는 교환 가치를 높이는 데에 이용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①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방향
- ②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
- ③ 토착어의 순수성을 지키는 방향
- ④ 의사소통의 공통성을 강화하는 방향

234

2022 국가직 9급

다음 글의 '동기화 단계 조직'에 따라 (가)~(마)를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설득하는 말하기의 메시지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동기화 단계 조직'이 있다. 이 방법의 세부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주제에 대한 청자의 주어나 관심을 환기한다.

2단계: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설명함으로써 청자의 요구나 기대를 자극한다.

3단계: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청자의 이해와 만족을 유도한다.

4단계: 해결 방안이 청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화한다.

5단계: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여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

(가) 지난주 제 친구는 일을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 오다가 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쳤습니다.

(나)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면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 아마 여러분도 가끔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2천여 명이 자전거를 타다가 머리를 다쳐 고생한다고 합니다.

(라) 만약 자전거를 타는 모든 사람이 헬멧을 착용한다면 자전거 사고를 당해도 뇌 손상을 비롯한 신체 피해를 75%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 타기가 주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마)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① (가) - (나) - (다) - (라) - (마)
- ② (가) - (다) - (나) - (라) - (마)
- ③ (가) - (다) - (라) - (나) - (마)
- ④ (가) - (라) - (다) - (나) - (마)

해설 (가) 친구가 자전거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여 '자전거 사고로 인한 머리 부상 예방법'이라는 주제에 대한 청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이는 동기화 단계 조직의 1단계에 해당한다.

(나) 자전거 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동기화 단계 조직의 3단계에 해당한다.

(다) 청자인 '여러분'도 가끔 자전거를 탈 것이라 말하고, 매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전거 사고로 머리를 다쳐 고생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즉 '자전거 사고로 인한 머리 부상'이라는 문제가 청자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청자의 요구나 기대를 자극하고 있으므로, 동기화 단계 조직의 2단계에 해당한다.

(라) 헬멧을 타고 자전거를 탄다면 자전거 사고 시 신체 피해를 줄이고 자전거를 타는 즐거움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전거를 탈 때 헬멧 착용'이라는 해결 방안이 청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동기화 단계 조직의 4단계에 해당한다.

(마)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라는 특정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동기화 단계 조직의 5단계에 해당한다.

이를 동기화 단계 조직에 따라 배열하면 (가) - (다) - (나) - (라) - (마)이다.

정답률 80.7% 정답 ②

235

2022 국가직 9급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이 기관을 잘 수리하여 정리하면 그 작동도 원활하게 될 것이요, 수리하지 아니하여 노둔해지면 그 작동도 막혀 버릴 것이니 이런 기관을 다스리지 아니하고야 어찌 그 사회를 고취하여 발달케 하리오.

㉡ 이렇므로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요, 사회 경영의 목표와 지향을 발표하여 그 인민을 통합시키고 작동하게 하는 기관과 같다.

㉢ 말과 글이 없으면 어찌 그 뜻을 서로 통할 수 있으며, 그 뜻을 서로 통하지 못하면 어찌 그 인민들이 서로 이어져 번듯한 사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으리오.

㉣ 그뿐 아니라 그 기관은 점점 녹슬고 상하여 필경은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그 사회가 어찌 유지될 수 있으리오. 반드시 패망을 면하지 못할지라.

㉤ 사회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서로 통하고 그 힘을 서로 이어서 개인의 생활을 경영하고 보존하는 데에 서로 의지하는 인연의 한 단체라.

- 주시경, <대한국어문법 발문>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해설 '말과 글'을 '기관'에 빗대어, 이것을 잘 다스려야 사회가 유지되고 발달된다고 주장한 글이다.

㉢ 사회는 여러 사람이 뜻을 서로 통하고 힘을 이어서 서로 의지하는 인연의 한 단체이다. → ㉤ 말과 글이 없으면 그 뜻을 서로 통할 수 없고 그러면 인민들은 서로 이어지지 못해 번듯한 사회의 모습을 갖출 수 없다(원인). → ㉡ 이렇므로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요, 인민을 통합 시키고 작동하게 하는 기관과 같다(결과). → ㉠ 이 기관을 잘 수리하지 않으면 그 작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사회가 발달할 수 없다. → ㉣ 그뿐 아니라 (이 기관을 잘 수리하지 않으면) 그 기관은 녹슬어 결국 쓸 수 없게 되어 그 사회가 유지되지 않아 패망할 것이다.

정답률 74.3% 정답 ④

공감 TIP

순수하게 독해력으로 문단 배열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 하지만 주어진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제 푸는 요령을 익혀 둘 필요가 있어. 문단 배열 문제를 풀 땐, 먼저 선택지의 제일 앞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접속어, 지시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해. 이래도 잘 풀리지 않는 문제는 난도가 높은 것인데, 그럴 땐 반복되거나 유사한 어구를 서로 묶어 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 보다 보면 감이 생길 거야.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과거에는 고통만을 안겨 주었던 지정학적 조건이 이제는 희망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는 동북아 물류와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해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나) 100년 전 우리는 수난과 비극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해양으로 나가려는 세력과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세력이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국권을 상실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 지금은 무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과 세계 선두권의 정보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다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물류 기반도 손색이 없습니다.

(라) 그 아픔은 분단으로 이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불행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변방으로 머물러 왔던 동북아시아가 북미·유럽 지역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① (가) - (나) - (다) - (라)
- ② (가) - (라) - (나) - (다)
- ③ (나) - (가) - (라) - (다)
- ④ (나) - (라) - (다) - (가)

해설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대조하여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전망한 글이다. (라)가 '그 아픔'으로 시작되므로 우리나라의 아픔을 서술한 (나) 뒤에 이어져야 자연스럽다.

(나) 특수한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100년 전 우리는 국권을 상실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과거). → (라) 그 아픔은 분단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 (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현재). → (가) 이제 한반도는 동북아 물류와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미래).

정답률 91.2% 정답 ④

다음 글을 미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의 전개 순서로 가장 옳은 것은?

㉠ 숨 쉬고 마시는 공기와 물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된 경우가 많고, 자원의 고갈, 생태계의 파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 현대인들은 과학 기술이 제공하는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편리함의 혜택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 자연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도처에서 높아지고 있어서, 핵전쟁이라도 터진다면 인류의 생존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 이런 위기들이 현대 과학 기술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 오늘날 주변을 돌아보면 낙관적인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는 심각한 현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해설 미괄식 전개란 주지를 글 마지막에 제시하는 방식이다. 주지는 '현대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은 위험하다'이므로 주지가 제시된 ㉤을 마지막에 둔다.

㉡ 현대인들은 과학 기술이 주는 혜택 때문에 인류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 ㉣ 그러나 낙관적 미래 전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깨닫게 해 주는 심각한 현상들이 많다. → ㉠ 심각한 현상들의 예: 자연환경의 파괴 → ㉢ 심각한 현상들의 예: (핵)전쟁 발발의 위험성 → ㉤ 현대 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은 위험하다(주지).

정답률 88.0% 정답 ③

㉠~㉣을 문맥에 맞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최근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공격적인 환경 보호 조치들을 취해 왔다.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 살충제와 독성 화학 물질의 확산, 동식물의 멸종 위기 등을 우려한 각국의 정부들은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인간 활동이 야생 및 원시 지역에서 만들어 낸 해로운 결과를 줄이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자해 왔다.

㉠ 그러나 이러한 규제 노력 가운데는 막대한 비용을 헛되이 낭비한 것들도 상당수에 달하며, 그중 일부는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했다.

㉡ 이 중 많은 조치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테면 대기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수십만 명의 조기 사망과 수백만 가지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

㉢ 예를 들어, 새로운 대기 오염원을 공격적으로 통제할 경우, 기존의 오래된 오염원의 수명이 길어져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기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해설 세계 각국이 실시한 환경 보호 조치의 의의와 한계를 설명한 글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공격적인 환경 보호 조치들을 취해 왔다. → ㉡ 이 중 많은 조치들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 ㉠ 그러나 이러한 규제 중 일부는 (환경)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기도 했다. → ㉢ 환경 보호 규제가 환경 문제를 악화시킨 사례

정답률 68.9% 정답 ①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성선설은 '인간이 선하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집안이든 나라든 모든 사회는 '인간'이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인간 안에서 '선한 요소'를 찾는 데, 이들이 찾는 선한 요소란 곧 도덕 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인간을 규정하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 왔다. 죄나 업을 가진 존재라는 종교적 이해 방식도 있었고, 억압된 존재라는 심리적 이해 방식도 있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인간을 애초부터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규정해 오기도 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선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관점이 그러하다.

(다) 반면, 성악설은 '인간이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를 인간이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인간의 바깥에서 국가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을 찾는다. 그것을 한비자는 법과 권력, 목자는 하느님이라고 했다.

(라) 이렇게 볼 때, 인간을 보는 관점은 인간이란 어떠하다는 인간론을 넘어서서, 누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된다. 그것이 사회 정치 이론의 받침돌이다.

- ① (라)-(가)-(나)-(다)
- ② (나)-(가)-(다)-(라)
- ③ (가)-(다)-(나)-(라)
- ④ (가)-(나)-(라)-(다)

해설 성선설 또는 성악설은 결국 누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며, 그것이 사회 정치 이론의 받침돌이 된다고 주장한 글이다.

(나) 훨씬 이전부터 인간은 선하다는 또는 악하다는 관점이 있었다. → (가) '인간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모든 사회는 '인간'이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보며, 이들은 인간 안에서 도덕 이성을 찾는다. → (다) 반면 '인간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법과 권력, 하느님같이 인간의 바깥에서 국가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을 찾는다. → (라) 이렇게 볼 때, 인간을 보는 관점은 누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는데, 그것이 사회 정치 이론의 받침돌이다.

정답 ②

- ①(가)-(다)-(나)-(라)-(마)
- ②(가)-(다)-(마)-(나)-(라)
- ③(가)-(마)-(라)-(나)-(다)
- ④(마)-(가)-(다)-(라)-(나)
- ⑤(마)-(나)-(라)-(가)-(다)

해설 유럽이 중국 백자 제조 기술을 밝혀내는 과정을 설명한 글이다. 시간의 흐름과 '문제(중국 백자 제조 기술을 찾지 못함) - 해결(고령토, 가마)'의 전개 방식을 고려하여 배열 순서를 찾아야 한다.

(마) 17세기 유럽 전역에 백자의 인기가 폭발적이었다. → (나) 18세기에 백자는 유럽 상류층의 살롱 문화에 품격을 더했으나 유럽인은 백자 제조 기술을 알지 못해 백자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 (라) 유럽에서 백자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는데, 원인은 백자의 주원료인 고령토를 알지 못했고, 1100도 이상의 가마를 만들지 못했던 데 있었다(문제). → (가) 보트거는 마이센에서 고령토 광산을 발견해 백자의 성분 문제를 해결한다(해결 1). → (다) 또 치른하우스의 도움으로 1400도 가마가 가능해져 백자의 유럽 생산 시대가 열렸다(해결 2).

정답 ⑤

2 글의 추론적 이해

생략된 단어나 접속어 추리하기

선재국어 2권 82쪽

312

2022 군무원 9급

㉠~㉣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이 눈 속으로 들어가면서 각막과 수정체에 의해 굴절되어 망막의 앞쪽에 초점을 맺게 되면 망막에는 초점이 맞지 않는 상이 맺힘으로써 먼 곳의 물체가 흐리게 보인다. 이것을 근시라고 한다.

근시인 눈에서 보고자 하는 물체가 눈에 가까워지면 망막의 (㉠)에 맺혔던 초점이 (㉡)으로 이동하여 망막에 초점이 맺히지 않게 보이던 물체가 선명하게 보인다. 그리고 이 지점보다 더 가까운 곳의 물체는 조절 능력에 의하여 계속 잘 보인다.

이와 같이 근시는 먼 곳의 물체는 잘 안 보이고 가까운 곳의 물체는 잘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근시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눈 속에 맺히는 초점이 망막으로부터 (㉢)으로 멀어져 가까운 곳의 잘 보이는 거리가 짧아지고 근시의 정도가 약하면 꽤 먼 곳까지 잘 볼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① 앞쪽 | 뒤쪽 | 앞쪽 | ② 뒤쪽 | 앞쪽 | 앞쪽 |
| ③ 앞쪽 | 뒤쪽 | 뒤쪽 | ④ 뒤쪽 | 앞쪽 | 뒤쪽 |

해설 1문단에 따르면, 근시인 눈에서 먼 곳의 물체를 볼 때는 망막의 앞쪽에 초점이 맺히게 된다. 그런데 그 물체가 눈에 가까워지면 초점은 뒤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에는 '앞쪽', ㉡에는 '뒤쪽'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또한 근시의 정도가 심하면 초점이 망막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므로, ㉢에는 '앞쪽'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정답률 68.9% 정답 ①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호질(虎叱)〉은 《열하일기》에 수록된 박지원의 대표적인 한문 소설로, (㉠) 수법으로 인간 사회가 지닌 문제점과 특히 지배층의 위선을 비판함으로써 색다른 재미와 교훈을 함께 주고 있다. 〈호질〉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범이 자신의 몸에 붙어 사는 창귀들과 함께 먹잇감을 의논하는 부분이다. 둘째는 학식과 명망을 갖춘 북곽 선생과 열녀로 소문난 과부 동리자가 밤에 남몰래 밀회를 즐기다가 동리자의 아들들에게 발각되어 수모를 당하는 부분으로, 양반 지배층의 위선과 가식을 폭로하고 있다. 셋째는 범이 북곽 선생을 만나 질타하는 부분으로, 범의 질책은 바로 작품의 제목이자 주제가기도 하다. 범은 살기 위해 목숨을 구걸하는 북곽 선생을 앞에 두고 인간의 부도덕함과 이기심, 서로를 죽이는 잔인함 등을 비판하고 그와 비교되는 범의 덕성을 얘기한다.

- ① 의고적(擬古的) ② 고답적(高踏的)
- ③ 우화적(寓話的) ④ 사실적(寫實的)

해설 〈호질〉은 부도덕한 북곽 선생을 비판하는 범(호랑이)을 통해 인간 사회가 지닌 문제점과 양반 지배층의 위선과 가식을 폭로하고 있다. 즉 동물인 '범'을 인격화하여 인간 사회와 지배층에 대한 풍자와 교훈의 뜻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에는 '우화적(寓話的)'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우화적(寓話的): 인격화한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또는 그런 것

- 오답 풀이**
- ① 의고적(擬古的): 옛것을 본뜨거나 옛 격식에 맞추는 것
 - ② 고답적(高踏的): 속세에 초연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고상하게 여기는 것
 - ④ 사실적(寫實的):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 내는 것

정답 ③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유전자의 (㉡)을/를 이용하여 먼 과거까지 들여다볼 방법이 있다. 한 종의 유전자 풀은 과거 특정 환경에서 살아남은 서로 (㉢) 카르텔이다. 이는 그 환경에 일종의 (㉣)을 남긴다. 지식이 있는 유전학자라면 한 동물의 (㉡)로부터 그 조상이 살았던 환경을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두더지의 DNA는 축축하고 짊짊하며, 지렁이 냄새, 딱정벌레 애벌레 냄새로 가득한 지하 세계를 드러내야 한다. 우리가 읽어 낼 줄만 안다면 아라비아 낙타의 DNA에는 고대의 사막, 모래바람, 사구, 목마름이 코딩되어 있을 것이다.

- | ㉡ | ㉢ | ㉣ | ㉣ |
|------|------|-------|-----|
| ① 사상 | 협력하는 | 음각 도장 | 유전체 |
| ② 정보 | 경쟁하는 | 양각 도장 | 유전체 |
| ③ 사상 | 경쟁하는 | 음각 도장 | 생태 |
| ④ 정보 | 협력하는 | 음각 도장 | 유전체 |
| ⑤ 사상 | 협력하는 | 양각 도장 | 생태 |

해설 ㉡ 유전자에 대한 지식을 통해 먼 과거를 들여다본다는 문맥이므로 '정보'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정보(情報):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또는 그 자료

㉢ '서로 (㉢) 카르텔'에서 '협력하는'이 들어감을 알 수 있다.

*카르텔(kartell): 『경제』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

㉣ ㉡에 '정보'가, ㉢에 '협력하는'이 들어가는 선택지는 ④밖에 없으므로, ㉣에는 '음각 도장'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 유전학자가 어떤 동물의 유전자 전체로 그 조상의 환경을 읽어 낸다는 문맥이므로 '유전체'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유전체(遺傳體): 『생명』 낱알의 생물체 또는 1개의 세포가 지닌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의 총량. 사람과 같은 진핵생물의 경우 반수(n)의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총량. ≒ 게놈

오답 풀이 ㉡ 생태(生態):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

정답 ④

365

2022 국회직 8급

다음 글에서 말하는 ‘그릇’ 도식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존슨의 상상력 이론은 ‘영상 도식[Image Schema]’과 ‘은유적 사상[Metaphorical Mapping]’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영상 도식이란 신체적 활동을 통해 직접 발생하는 소수의 인식 패턴들이며, 시대와 문화를 넘어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인식의 기본 패턴들이다. 존슨은 ‘그릇[Container]’, ‘균형[Balance]’, ‘강제[Compulsion]’, ‘연결[Link]’, ‘원-근[Near-Far]’, ‘차단[Blockage]’, ‘중심-주변[Center-Periphery]’, ‘경로[Path]’, ‘부분-전체[Part-Whole]’ 등의 영상 도식을 예로 들고 있다. 우리는 영상 도식들을 물리적 대상은 물론 추상적 대상들에 ‘사상[Mapping]’함으로써 사물을 구체적 대상으로 식별하며, 동시에 추상적 개념들 또한 구체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릇’ 도식을 방이나 건물 같은 물리적 대상에 사상함으로써 그것들을 안과 밖이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 ‘그릇’ 도식을 꿈이나 역사 같은 추상적 대상에 사상함으로써 ‘꿈속에서’나 ‘역사속으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 ① 사랑받는 사람의 심장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 ② 원수를 기다리는 그의 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 ③ 전화기에서 들려온 말은 나를 두려움 속에 몰아넣었다.
- ④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의 진전 없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 ⑤ 지구의 반대편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드디어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해설 우리는 ‘그릇’ 도식을 물리적 대상에 사상함으로써 그것들을 안/밖이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고, 또한 추상적 대상에 사상함으로써 ‘~속에서’, ‘~속으로’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④는 ‘관계가 심화되지 않음’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막다른 길에 부딪히다’라는 구체적 대상으로 식별하고 있지만, 안과 밖이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속’과 같은 표현으로 구체화하지 않았으므로 ‘그릇’ 도식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② ‘심장’과 ‘눈’을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해 ‘가득 차 있다’, ‘담겨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③⑤ ‘그릇’ 도식을 추상적 대상인 ‘두려움’과 ‘시야에 사상함으로써’ ‘두려움 속에’, ‘시야(속)에’ 들어오고 있다’ 등의 표현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정답 ④

3 글의 비판적 이해

어휘나 문장 구조의 적절성 검토하기

선재국어 2권 93쪽

366

2022 지방직(서울시) 9급

㉠~㉢의 고쳐쓰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파놉티콘(panopticon)은 원형 평면의 중심에 감시탑을 설치해 놓고, 주변으로 빙 둘러서 죄수들의 방이 배치된 감시 시스템이다. 감시탑의 내부는 어둡게 되어 있는 반면 죄수들의 방은 밝아 교도관은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교도관을 바라볼 수 없다. 죄수가 잘못했을 때 교도관은 잘 보이는 곳에서 처벌을 가한다. 그렇게 수차례의 처벌이 있게 되면 죄수들은 실제로 교도관이 자리에 ㉠ 있을 때조차도 언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공포감에 의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이렇게 권력자에 의한 정보 독점 아래 ㉡ 다수가 통제된다는 점에서 파놉티콘의 디자인은 과거 사회 구조와 본질적으로 같았다.

현대 사회는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시놉티콘(synopticon)의 시대가 되었다. 시놉티콘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인터넷의 ㉢ 동시성이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신변 노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언론과 통신이 발달했고, ㉣ 특정인이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판적 인식 교류와 부정적 현실 고발 등 네티즌의 활동으로 권력자들을 감시하는 전환이 일어났다.

- ㉠ ㉠을 ‘없을’로 고친다.
- ㉡ ㉡을 ‘소수’로 고친다.
- ㉢ ㉢을 ‘익명성’으로 고친다.
- ㉣ ㉣을 ‘누구나가’로 고친다.

해설 1문단에서 파놉티콘의 디자인을 ‘권력자에 의한 정보 독점 아래 ㉡ 다수가 통제’되는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권력자’는 소수의 교도관을, ‘다수’는 죄수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을 ‘소수’로 고친다는 의견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파놉티콘은, 교도관은 죄수들을 바라볼 수 있지만 죄수들은 교도관을 바라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감시탑 안에 교도관이 실제로 없어도 죄수들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교도관에게 언제 처벌받을지 모르는 공포감 때문에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따라서 ㉠ ‘있을’을 ‘없을’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③ 2문단의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신변 노출 없이 자유롭게 표현’은 바로 앞 문장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다. 따라서 ㉢ ‘동시성’은 ‘익명성’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익명성(匿名性):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
 ④ 현대의 정보화 사회를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시놉티콘의 시대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 ‘특정인’을 ‘누구나가’로 고쳐, 정보화 시대에는 언론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가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이루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률 90.9% 정답 ②

367

2021 지방직(서울시) 7급

㉠, ㉡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투표 제도에는 투표권 행사를 투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자유 투표제와 투표권 행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권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의무 투표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 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측은 낮은 투표율로 투표 결과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법적 제재는 분명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 것이므로 의무 투표제가 낮은 투표율을 해결할 최선의 방안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나아가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수록 정치인들은 정책 경쟁력을 높여 할 것이므로 정치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면 ㉡ 의무 투표제에 반대하는 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본다. 또 시민 교육 등 다른 방식으로도 투표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의무 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일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면,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부작용이 생겨 국민의 뜻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① ㉠은 투표율의 증가가 후보들의 정책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② ㉠은 정당한 사유 없는 기권에 대한 법적 제재가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③ ㉡은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④ ㉡은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해설 2문단에 따르면,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의무 투표제 도입 시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이다. ㉠은 이러한 부작용을 근거로 들어 의무 투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은 ㉡의 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② 1문단에 따르면, ㉠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측은 법적 제재가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 것이며, 투표율이 높아지면 정치인은 정책 경쟁력을 높여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만 있을 뿐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2문단에 따르면, ㉡ '의무 투표제에 반대하는 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률 86.4% 정답 ③

369

2022 국회직 8급

<보기>의 관점에서 ㉠을 비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원칙적으로 사람들은 제1 언어 습득 연구에 대한 양극단 중 하나의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 극단적 행동주의자적 입장은 어린이들이 백지 상태, 즉 세상이나 언어에 대해 아무런 전제된 개념을 갖지 않은 깨끗한 서판을 갖고 세상에 나오며, 따라서 어린이들은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다양하게 강화된 예정표에 따라 서서히 조건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반대쪽 극단에 있는 구성주의의 입장은 어린이들이 매우 구체적인 내재적 지식과 경향, 생물학적 일정표를 갖고 세상에 나온다는 인지주의적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주로 상호 작용과 담화를 통해 언어 기능을 배운다고 주장한다. 이 두 입장은 연속선상의 양극단을 나타내며, 그 사이에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을 수 있다.

보기 생득론자는 언어 습득이 생득적으로 결정되며, 우리는 주변의 언어에 대해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언어의 내재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유전적 능력을 타고난다고 주장한다.

- ① 언어 습득에 대한 연구에서 실제적 언어 사용의 양상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
② 아동의 언어 습득을 관장하는 유전자의 실체가 확인될 때까지는 행동주의는 불완전한 가설일 뿐이다.
③ 아동은 단순히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④ 아동의 언어 습득은 특정 언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핵심 과정인데, 행동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⑤ 아동의 언어 습득이 외적 자극인 환경에 의해 전적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행동주의 모델은 배우거나 들어 본 적 없는 표현을 만들어 내는 어린이 언어의 창조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해설 <보기>의 '생득론자'는 인간은 언어 습득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 '극단적 행동주의자'는 아동은 언어에 대한 어떤 것도 갖지 않고 태어나며 따라서 언어 습득은 전적으로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동이 배우거나 들어 본 적 없는 표현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어, 아동의 언어 습득이 환경에 의해 전적으로 형성된다는 ㉠의 주장을 비판한 ⑥가 정답이다.

오답 풀이 ② 아동의 언어 습득을 관장하는 유전자의 실체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생득론자'의 주장에 대한 비판과 관련된다.

④ 언어 습득에서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행동주의의 반대쪽 극단에 있는 '구성주의'의 입장이다.

정답 ⑤

370

2022 국가직 9급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양상은 다양하다. 첫째, “아침 먹고 또 공부하자.”에서 ‘아침’은 본래의 의미인 ‘하루 중의 이른 시간’을 가리키지 않고 ‘아침에 먹는 밥’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밥’의 의미가 ‘아침’에 포함되어서 ‘아침’만으로도 ‘아침밥’의 의미를 표현하게 된 것으로, ㉠ 두 개의 단어가 긴밀한 관계여서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변화하게 된 경우이다. 둘째, ‘바가지’는 원래 박의 껍데기를 반으로 갈라 썼던 물건을 가리켰는데, 오늘날에는 흔히 플라스틱 바가지를 가리킨다. 이것은 ㉡ 언어 표현은 그대로인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시 대상 자체가 바뀌어서 의미 변화가 발생한 경우이다. 셋째, ‘묘수’는 본래 바둑에서 만들어진 용어이지만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도 ‘쉽게 생각해 내기 어려운 좋은 방안’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되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경우에 해당한다. 넷째, 호랑이를 두려워하던 시절에 사람들은 ‘호랑이’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기 꺼려서 ‘산신령’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 심리적인 이유로 특정 표현을 피하려다 보니 그것을 대신하는 단어의 의미에 변화가 생긴 경우이다.

- ① ㉠: ‘아이들의 코 묻은 돈’에서 ‘코’는 ‘콧물’의 의미로 쓰인다.
- ② ㉡: ‘수세미’는 원래 식물의 이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 ③ ㉢: ‘배꼽’은 일반적으로 ‘땃줄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를 가리키지만 바둑에서는 ‘바둑판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쓰인다.
- ④ ㉣: 무서운 전염병인 ‘천연두’를 꺼려서 ‘손님’이라고 불렀다.

해설 제시문은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양상과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은 ‘묘수’와 같이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되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화한 경우이다. 그러나 ㉢에서 ‘배꼽’이 일반적으로 땃줄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를 가리키지만 바둑에서는 ‘바둑판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이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는 경우로 이는 특정 분야에서 의미가 특수하게 변화된 예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의 사례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배꼽점**: 바둑판 한가운데의 점. 또는 그 자리에 놓은 바둑돌

- 오답 풀이** ① ㉠ ‘밥’의 의미가 ‘아침’에 포함되어서 ‘아침’이 ‘아침밥’의 의미를 표현하게 된 것처럼, ‘코’가 ‘콧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액체’, 즉 ‘콧물’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의 사례로 적절하다. 이는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변화한 것으로, 의미 변화의 원인 중 형태 일부가 생략된 후 나머지에 전체 의미가 잔류한 ‘언어적 원인’과도 관련이 있다.
- ② ㉡ ‘바가지’는 원래 박을 갈라 썼던 물건을 의미했지만 오늘날 플라스틱 바가지를 가리키는 것처럼, ‘수세미’는 예전에는 식물의 이름을 의미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으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이는 언어 표현은 그대로인데 지시 대상 자체가 바뀐 것으로, 지시물이 변화하여 언어 형태와 지시물의 관계가 달라진 ‘역사적 원인’과도 관련이 있다.
- ④ ㉣ ‘호랑이’를 ‘산신령’으로 부른 것은 두려움으로 인해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로, ‘천연두’를 꺼려서 ‘손님’이라고 부른 것 역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이는 심리적인 이유로 특정 표현을 피하려다 보니 의미나 용법이 변화하게 된 것으로 ‘심리적 원인’과도 관련이 있다.

정답률 78.9% 정답 ③